

수도권 최초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경기, 15~18일 시화호·전곡항서 개최... 4개 정식종목·4개 번외종목·35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도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해양스
포츠인 들의 대축제 '제14회 전국해
양스포츠 제전'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시화호·안산 시화호 및 화성
전곡항 일원에서 도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
공사(K-water)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일반부 등 5천여
명의 선수가 ▲요트 ▲카누 ▲수중
핀수영 ▲철인3종 등 4개 정식종목
과 ▲드래곤보트 ▲바다수영 ▲고무
보트 ▲SUP 보트 등 4개 번외종목,
35개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

다. 박삼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5
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국 해양스포츠 제전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화호와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다"라며 "요트·보트 보유대수
와 조종면허 취득수 전국 1위인 경기
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를 해
안경제관광 활성화와 해양스포츠 산
업육성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에 대한 소개도 차례로 진행됐다.
박 국장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
해 경기국제보트쇼, 마리나 시설 조
성, 조종면허증 취득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 2008년 시
작된 이래 매년 5만여 명이 관람하는
경기국제보트쇼(KIBS)는 두바이 보
트쇼, 상하이 보트쇼 등과 더불어 명
실상부한 아시아 3대보트쇼로 자리
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
200척 규모의 전국 마리나를 2013년
6월 준공했고,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300척 규모 제
부마리나 공사도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라며 "300
척 규모의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시
설도 2023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소
개했다. 이밖에 해양레저 조종면허
취득교육 프로그램, 요트·보트 체험

교육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
업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로 경기도에 들어선 해양레저 인력
양성센터 등도 언급했다. 박 국장은
"자체사업인 해양아카데미 사업과
국비사업인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
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
16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해양
레저인력양성센터를 통해 보트·요
트 기계정비, 도장실습 등 전문인력
을 육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
안레포츠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
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
조했다. **■김진태 기자**

LH 수원고등 C-1BL 행복주택 건설현장 2공구 비산먼지 폴폴

수원 팔달구 "계도 후 행정처분, 시간이 조금 걸려"... 피해는 시민 몫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공사현장
에서 비산먼지가 대량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피해는 고스란
히 시민의 몫이 됐다.

5일 최고기온 36°C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한창인 낮 1시경 LH 수원고
등 C-1BL 행복주택 건설현장 2공구,
현장 건물에서 마치 화재를 방불케
할 정도의 흰 연기가 굉음과 함께 뿜
어져 나왔다.

한동안 계속해서 발생한 이것의
정체는 비산먼지로 현장 관리직원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현장 중간관리인으로 밝
힌 직원은 본지와의 1차 통화에서
"비산먼지가 나오는 정도의 작업을 하
는 곳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
장확인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
고 전했다.

이어 이 직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
와 "현장확인 결과 비산먼지가 맞다"
고 시인하면서 "평소에 분진 방지망
설치 등 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
는데 문문 쪽이 아닌 현관 쪽이 시설
이 미비해 그 사이로 빠져나온 것"이
라고 해명했다. 직원은 또, "평소에
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



LH 수원고등 C-1BL 행복주택 건설현장 2공구 현장건물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자가 당일 어떤 작업이 있는지,
피해방지는 잘 돼 있는지에 대해 인
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관리관청인 팔달구에
서는 계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당장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팔달구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나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비산먼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도
이외에는 당장 행정처분을 할 수 없

다"면서 "현장 지도 후 시정되지 않
을 경우 추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겠
다"고 말했다. 현장 입구에 설치된
'비산먼지(소음, 진동)발생 설명사업
장'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일반적으
로 게시한 것으로 먼지를 발생시키
지 않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라고 덧
붙였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을 확인해 주의를 주는 한편,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
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기자**



5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애론 타버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이 '아메리칸코너 개관 MOU'를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 주한미국대사관과 아메리칸코너 개관 MOU

내년 초 배다리 도서관 개관

평택시는 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미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아메리칸코
너 설립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대
사 해리 해리스)과 '평택 아메리칸코
너 개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
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애론
타버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 등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평택 배
다리 도서관에 설치 될 '평택 아메
리칸코너' 개관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메리
칸코너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대사관과 공공도서관의 협
력 사업으로 시에서는 전담 인력과
전용 공간을 지원하며 미대사관은
▲다양한 미국 관련 도서, ▲DVD 및
경기 간행물, ▲영어교육 및 유학 관
련 자료·정보, ▲정기적인 교육프로
그램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제
공한다. 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 간 상호 이해증진 및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아메
리칸코너 유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9월 평택 아메리칸코너 개설
을 신청했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실
무회의와 벤치마킹 추진 등 개관 승
인회와 벤치마킹 추진 등 개관 승
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 미국무부가 전 세계 27
개소의 신청건 중 평택을 포함한 13
개소의 개관을 승인함에 따라 평택
시는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에 이어
국내 네 번째, 기초자치단체로는 최
초로 아메리칸코너를 개관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
자는 "평택 아메리칸코너가 도서관
의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미국

에 대한 정보를 찾고 영어실력 향상
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
은 물론, 평택 시민들을 위한 역동적
이고 친근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문
화·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함께 성장하는 한
국과 미국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아메리칸 코너는 배다
리 도서관내 공간 정비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김진태 기자**

수원, 저소득층 건강한 자립 돕는 '자활사업' 탄력

3개 지역자활센터 '주KCC 사회공헌 지원 사업' 선정... 1억5000만 원 지원받아

수원시가 운영하는 3개 지역자활
센터가 (주)KCC가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주)KCC는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활역량을 키워주는 지역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
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원시 3개 지역자
활센터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약계
층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을 운영
하게 된다. 사업비는 경기사회복지공
동모금회가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3
000만 원),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9
000만 원),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3

000만 원)에 배분한다. 우만지역자활
센터는 (주)KCC와 연계해 참여자들에
게 인테리어 관련 교육·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참여자 스스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KCC 숲으
로 하우스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한
다.

희망지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 청
년에게 목공교육·목공장비 등을 지
원해 전문가로 양성하는 '미네(MI-
NE, 빛나는 나) 공방 구축 사업', 수
원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이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택배배송 사업단'을 운영
한다. 수원시는 올해 고용노동부 취

업성공패키지 지침 변경으로 지역자
활센터 자활사업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이를 해소할 방안을 고심하던
중 (주)KCC 사회공헌 지원 사업에 선
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더 많은
지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자활사업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백운오 수원시 사회복지
과장은 "(주)KCC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
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
으로도 저소득층이 자립 의지를 키
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

성명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약칭 '신천지예수교 회', '신천지')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새 언약대로 창조된 교단입니다. 그 창조도, 교명과 인명도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창조하였고 명칭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추수도, 인침도, 12지파 창조도 성경에 지시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 12지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된 실체들까지도 통달합니다(4복음서의 예언 및 계시록의 예언과 그 실상까지 통달). 이 성경 지식은 하나님께서 6천 년간 역사하신 것 중

천지 최고의 성경 지식이며, 태고이후초락도(太古以後初樂道)입니다.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 신에게 절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고, 우리 청년들을 일본 군대에 잡아다 주지 않았으며, 군수 물자를 만들어 바치지도 않았고 교회의 종까지 떼다가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은 반국가·반사회·반종교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 현재 우리 신천지는 우리나라와 종교와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계시로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된 것을 알았고 통달하였으며, 공의 공도를 실천하고 있습니

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몰려오는 것은, 자기 교회의 부패로 생명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곳 신천지에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 신천지는 6개월간 말씀을 무료로 가르친 후 시험에 합격되면 비로소 성도로 받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 하나님의 씨로 난 자, 인 맞은 자, 12지파에 속한 자가 천국의 소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과 믿음과 구원입니다.

2019. 7. 26
신천지예수교회 교역자 일동

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신내~중랑IC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 만들어... 공공주택,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 들어서

서울시와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Compact City)를 선보인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신개념 공공주택 모델이다.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여 규모 공공주택(청신호 주택),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이 집약적·입체적으로 들어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한다. 인공대지 위 곳곳에는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

용시설 등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또,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이자, 경춘선 신내역과 향후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인 일대의 잠재력을 살려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북부간선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신내역과 기존 주거지(신내3지구)를 공중보행길(스카이웨이)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랫동안 단절됐던 지역과 지역을 잇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내 IC일대는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이자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의과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과 경제지역의 지리적 요충지로 꼽힌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도시 전반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를 극대화, '낙후·고립'이라는 공공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상태로, 향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적의 공법을 채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대행자인 SH공사는 저이용 공공시설인 도로 상부를 활용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밑그림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을 위해 사업지 총 7만4,675㎡를 '공공주택지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해 5일부터 14일 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20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

지(7만4,675㎡)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약 500m(2만3,481㎡), 북부간선도로와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창고 부지(3만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일부(1만7,675㎡)를 포함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크게 5가지 요소(△인공대지 △생활SOC △휴식·녹지공간 △스카이웨이 △청년 주택 및 일자리공간)가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민공람 공고 이후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서울시, 중랑구, SH공사가 참여하며, 월 1회(필요시 수시개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6년 간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더 나아가 공공주택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단순히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내겠다"며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의 '슬랑켄버더 슈트라세', 유희부지에 혁신적 건축물을 짓는 프랑스의 '리인벤텨 파리' 같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해 지역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신개념 공공주택을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북부간선도로 상부의 새로운 컴팩트시티가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

를 내고 단절을 극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제 서울의 공공주택 건설은 과거 도시의과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던 방식이 아닌 도심내 유희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복합된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고립되어 생활하기 불편했던 신내IC 일대는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며, 젊고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정부가 5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산염,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통관 절차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며,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

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확보를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위한 4

가지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효과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4개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공급망 연계형(공동시설 투자) 등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공동투자형(공동개발·시설 투자)·공동재고확보형(해외

공급처 발굴) 등 수평적 협력모델 등이다.

또한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와함께 공장 신증설, 신규 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소와 매칭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혁신 랩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들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한다.

2021년 12월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택의 대상을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송수만 기자

일에 맞서 100대 전략소재·부품 5년내 국내 공급 확보한다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편성하고 세제·금융 등 가능한 수단 총동원...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에 가장 중점

2019년 3월 15일 창간 (주)아시아일보	아시아일보	등록번호 서울 가00205(일간) 2000년 11월 22일
발행·편집인: 권희민 편집국장 겸 총괄사무: 김용수 인쇄인: 현재오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9 스타빌 1304호 Tel. (02) 588-2996 / FAX (02) 855-8784		
편집국 (02) 588-2996 편집부 (02) 588-2996 정치부 (02) 855-8781 경제부 (02) 855-8782	사회부 (02) 855-8783 문화부 (02) 855-8781 광고국 (02) 855-8782 총무국 (02) 855-8783 고충처리위원회 (02) 855-8781	제2사회부 (02) 855-8783 문체부 (02) 855-8782 독자재로 (02) 588-2996 광고문의 (02) 855-8782
E-MAIL: asiainf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asiainfo.co.kr 구독료 1만5천원/1부 700원 본지는 언론윤리규정과 실연요강을 지킵니다.		

LG전자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19 주방·세탁 가전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주방 가전 만족도 1위에 올랐다.

LG전자는 주방가전 부문에서 식기세척기, 프렌치도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일반 냉장고 등 업계에서 가장 많은 4개 제품이 1위에 올랐다. 특히 LG전자는 주방가전 분야에서

지난 2017년 4개 제품, 2018년 3개 제품에 이어 올해도 4개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방가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

LG전자가 글로벌 프리미엄 생활가전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최고 주방가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인버터 다이렉트 드라이브(DD, Direct Drive) 모터 등 차별화된 핵심부품과 기술력이 크게 기여했다.

모터가 직선운동을 하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는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적어 일반 인버터 컴프레서보다 에너지효율이 18% 이상 뛰어나다.

일반 컴프레서보다 구조가 단순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소음도 적다. 또 모터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냉장고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

할 수 있다.

신개념 수납공간인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는 고객들이 보관중인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여 문 전체를 여닫을 때에 비해 냉기 유출도 최대 47% 까지 줄여준다.


■이창은 기자


다른 사람에게는 수없이 했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안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잠시 쉬어가도 돼' 건네는 응원의 말

"한숨과 눈물에 시간을 내주고 말았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복해졌으면 해요. 당신도 나도 우리 같이 행복해졌으면 해요."





한정판 바깥스 에디션

송정림 지음 | 채소 그림 | 240쪽 | 13,500원

송정림 매일 아침 에세이를 쓰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지은 책으로 《설렘의 습관》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 등이 있다.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녹색 마차> 등의 극본과 라디오 KBS 1FM <출발 FM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등의 작가로 일했다.

곰지락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재심의 안 한다

전년대비 2.87% 인상...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

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상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안 기자

LG전자 ‘LG 시그니처 에어컨’ 국내 출시

세계 최초 올인원 에어솔루션·혁신적인 편의 기능 탑재... 정제된 디자인·압도적 성능 갖춰

LG전자가 5일 초프리미엄 에어컨인 LG 시그니처(LG SIGNATURE)에 에어컨을 본격 출시했다. 신제품은 LG 시그니처만의 정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계절 공기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올인원 에어솔루션(All-In-One Air Solution)과 혁신적인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LG전자는 공기를 형상화한 원형과 절제된 직선으로 LG 시그니처 에어컨의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또 제품 전면부 전체에 프리미엄 리얼메탈을 적용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한다. 신제품은 세계 최초로 올인원 에어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온도를 조절하는 냉방과 난방, 습도를

관리하는 가습과 제습,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공기청정까지 모든 공기 관리 기능을 갖췄다. 단 한 대의 에어컨에 5가지 공기 관리 기능을 탑재한 LG 시그니처 에어컨은 사계절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LG전자는 공기 관리 기능을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융합해 구현했다. 시그니처 서클은 강력한 기류를 형성해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상하좌우 빈틈없이 더 멀리 보내준다. 또 인공지능 센서가 사람의 위치, 거리를 감지하고 바람을 제어해 맞춤형 바람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4X 파워 냉난방은 고객

이 머무는 공간을 쾌적하게 해준다. 특히 이 기능은 4개의 고성능 팬이 정면과 측면의 토출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기존 듀얼 에어컨 대비 최대 47% 더 많이 약 28% 더 빠르게 내보내며 실내 공기를 순환시킨다. 신제품은 LG전자의 특허 기술인 트루스팀을 적용한 프리미엄 가습 기능도 갖췄다. LG 시그니처 에어컨은 겨울철에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 기능을 동시에 사용해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며 쾌적하게 난방 할 수 있다. 꼼꼼한 위생관리도 장점이다. 4단계 위생가습시스템은 물통과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물통살균, 스티밍, 건

조, 물통 자동배수 등 4단계를 처리한다. 특히 물을 보관하는 물통에 자외선(UV) LED 자동 살균 기능을 적용했다. LG 시그니처 에어컨은 공기청정 면적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 제품은 약 35평(117제곱미터) 공간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신제품은 혁신적인 편의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시그니처 필터 클린봇은 에어컨의 극세필터를 자동으로 청소한다. 사용자는 6개월에 한번씩 먼지통만 비워주면 된다. 오토 스마트 버티도 편리하다. 사용자가 제품 전면 하단에 발을 대면 물통이 자동으로 나와 편리하게 물을 보충할 수 있다. 오토 무빙 필터는 버튼 하나로 필터가 자동으로 열려 사용자가 간편

하게 필터를 넣고 뺄 수 있다. 시그니처 블랙 필터는 물로 세척한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건조하면 10년간 거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필터는 고성능 집진필터이며 황사, 초미세먼지 등을 깨끗이 정화해준다. LG 시그니처 에어컨은 23평형 스탠드 에어컨과 7평형 벽걸이 에어컨으로 구성된 투인원(2in1)이며 가격은 출하가 기준 1,290만원이다. LG전자가 국내시장에 선보인 LG 시그니처 제품은 기존의 올레드 TV, 냉장고, 세탁기, 가습공기청정기에 이어 이번 에어컨까지 모두 5종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정제된 디자인과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LG 시그니처 에어컨을 통해 고객들이 초프리미엄 가전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은 기자

LG유플러스가 총 8종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완성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케어에 특화된 신규 5G 요금제 ‘5G 플래티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반기 프리미엄 및 중저가 5G폰이 연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번 요금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G 플래티넘’은 월 10만원대(10만5,000원, VAT포함)에 데이터 300GB(소진 후 10Mbps 속도제한)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다. 가족형 요금제(5G 슈퍼 플래티넘)가 필요 없는 대용량 데이터 이용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선택약정 할인 적용가는 월 7만8,750원(VAT 포함)이며, 올 연말까지 가입 시 24개월간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다. 음성·문자는 기본 제공, 테더링·웨어링 데이터는 월 100GB를 서비스한다. 가족간 데이터 주고받기는 5G·LTE 상관 없이 월 4GB까지 가능하며, 세컨드 디바이스 월정액은 2회선까지 제공한다. 이번 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말기 케어를 위한 다채로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입자들은 △분실/파손보험료 할인(10월 말까지 가입 시, 매달 3,800원씩 24개월간) △산실심판 백업 무료(12월 말까지 가입 시, 월 정액 3,300원 할인, 24개월 간)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요금제가 단말 케어 서비스 가입률이 높은 2030세대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갤럭시노트10과 같은 프리미엄폰 및 중저가 보급형 5G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단말 관련 혜택이 더욱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이 밖에도 ‘5G 플래티넘’ 고객 대상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요금제 가입자들은 지니뮤직, U+모바일tv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로밍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12월말까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연말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8월말까지는 넷플릭스 3개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현 LG유플러스 상품/기획전략담당 사장은 “‘5G 슈퍼 플래티넘’이 가족 결합 고객에게 적합하다면, ‘5G 플래티넘’은 개인 데이터 용량과 단말 케어 혜택을 더욱 중시하는 20~30대 고객들의 특성을 반영한 요금제”라며 “지난주 출시한 청소년·시니어 요금제와 더불어 업계 대비 2배인 총 8종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완성했다. 앞으로도 각 연령층의 특징을 고려한 요금 상품을 늘려 고객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주 업계 최초 4만원대 5G 요금제와 가족 데이터 공유에 특화된 ‘5G 슈퍼 플래티넘’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올 3월에는 5G 요금제를 가장 먼저 내놓으며 요금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5월에는 가족 3명이 결합하면 5G 요금제를 반값에 쓸 수 있는 5G 결합 할인을 처음 선보였다.

■진보라 기자

한국전력은 5일부터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인 EN:TER를 오픈했다. EN:TER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와 ‘고객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마켓’, ‘전력수요관리(DR)마켓’, ‘전력데이터서비스(EDS)마켓’으로 구성됐다. 고객들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한전,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 EN:TER 오픈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중개... 전력통계·분산전원 연계정보 등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

(ESCO)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회사·공장·빌딩 등의 노후화 또는 저효율 에너지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대체하거나, 전력수요관리(DR)마켓을 통해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전력데이터서비스(EDS)마켓

에서 전기사용량을 손쉽게 확인하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전력데이터와 이종(異種)데이터 연결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EN:TER는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이외에도 이용회원들이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KEPCO 모바일 App 다운로드, 우리 동네 전기공사업체 안내, 분산전원 연계정보 안내, 전력통계, 한전 특허검색 등 고객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N:TER는 사이트(www.en-ter.c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EN:TER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견적, 기업매칭, E-Store 개설 등은 모두 무료(단, 설비진단비용 등은 비용 발생 가능)로 제공된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 신산업 펀드 마켓 등을 추가로 오픈하는 등 에너지 분야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KB국민은행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피해 기업의 만기도래 여신에 대해서

KB국민은행,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기업 대상 긴급 금융지원 실시

는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의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분할상환대출을 보유한 피해 기업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상환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 기업들에 대해서도 환율 우대와 함께 외국환 관련 수수

료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영향이 높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특별우대금리로 신규자금

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개선프로그램을 통한 회생방안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수출 규제 피해 기

업 금융지원 특별대책’을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금융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당신의 물은 안녕하십니까?

물동이 인 어머니는 추억이지만 물 찾는 우리는 미래입니다.



아시아일보 생활속 물 절약 캠페인 2019년 7월18일~12월31일

생활속 물 절약 방법

- ☞ 화장실에서: 비누칠할 때 물 잠그기, 변기 수조에 절수기 설치하거나 PET 병 넣기
- ☞ 세탁할때: 빨래는 모아서 한번에, 적정 횟수로 행굼하기, 합성세제 정량 사용하기
- ☞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수도 잠그기, 주방세제 사용 줄이기,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하기
- ☞ 욕실에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비누칠할 때 물 끄기, 절수형 샤워헤드 사용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하반기 1500명 추가 선정... 7일부터 접수

서울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미만,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청년...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한 5,162명에게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 1,5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30억6,000만원 을 투입, 오는 7일부터 접수를 시작

한다고 밝혔다. 추가 청년수당 신청 접수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25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50만

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청년수당 참여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2019년 1차 청년수당 사

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

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다. 선정결과는 3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 9월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8월1일 공고

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영남 기자

KT&G, 실력과 경력 뮤지션 지원하는 '2019 써라운드' 모집

최종 3팀에 3000만원 상당 혜택... 오는 25일까지 응모

KT&G가 경력 뮤지션의 재도약을 위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2019 써라운드(S.around)' 참가자를 5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써라운드'는 국내 대부분의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이 신인들에게 편중된 점에 착안해, 실력과 경력 뮤지션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KT&G가 선보인 독창적인 음악지원 사업이다. KT&G의 '써라운드'는 상상마당

(Sangsangmadang)과 뮤지션이 음악으로 세상을 둘러싼(Surround)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고은, 눈뜨고교배인, 고고보이스를 시작으로 2015년 단편선과선원들, 사비나앤드론즈, 2017년 서사무엘, 우효를 선발해 음반 제작부터 공연 개최까지 음악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올해 열리는 '2019 써라운드'는 최근 음악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앨

범 제작' 위주의 지원에서 '공연 개최'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최종 선정된 3개 팀은 먼저 공동 공연 기회를 부여받고, 각 삼금 200만원과 공연제작비 500만원 그리고 단독공연 개최 이후 수익 전액을 포함해 팀당 1,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발표한 자작곡이 10곡 이상으로 단독공연(200석 이상 규모) 개최 경험이 있는 뮤지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을 위해서는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

(www.sangsangmadang.com)를 통해 지원서와 공연영상,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KT&G 문화공헌부 지효석 부장은 "KT&G는 '써라운드'를 통해 문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성 뮤지션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면서 "이외에도 신인과 버스킹 뮤지션을 지원하는 밴드디스커버리, 언더더루프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실력과 음악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안 기자



군사보호구역 내 사유지 개발 허가 '군 부동의' 처리에 주민 불만 호소

경기도 김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유 개발 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 군 부대의 부동의(不同意) 처리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육군 제17보병사단 부대가 지주들이 소유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건에 대해 지난 1월 신청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681-5 소재의 일부 땅에 대한 건축 지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나선 것.

해당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하 군보법)'에 따라 해당 부지가 군 작전 계획 적용 시 필수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관측 및 시계 방해와 함께 유사 시 충분한 화력운용이 제한되는 부정적 요소가 있어 부동의 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 허가를 신청한 일부 지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군부대의 태도에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개발 허가를 신청한 일부 지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군부대의 태도에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만간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위한 민원을 지자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른 부지와 달리 협의가 들어온 지역은 군부대가 유사 시에 사격 등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인 300m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보법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었다"며, "군부대는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원인들이 제기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일부 지주들은 인근 한강신도시와 유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 및 인허가 조건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으로 보고 탄원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용환 기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8월까지 업데이트하세요”

내달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

서울 양천구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번호 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공기관, 민간주차장, 쇼핑물, 아파트 등에 있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신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8월내에 사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 대를 넘어섬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7자리 자동차

번호가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의 번호판 체계를 기존 7자리(12가1234)에서 알자리 숫자 1개를 추가한 8자리(123가1234)로 늘려 시행한

다.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량은 월 15만~16만대 수준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징산, 교통 정체 등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구는 오는 8월까지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것을 당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관련 민간업체들에게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는 납품업체 및 운영업체에 연락하면 가능하다. ■김용수 기자

순천 K자동차 대리점 대표,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순천 K 자동차 대리점 K 대표가 협박 혐의로 목회자 2명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 대표는 순천시의원에 2차례 출마한 이력과 자유총연맹 순천시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런 K 대표를 평양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김모, 최모 목사가 각각 순천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목사는 순천노회의 인사권을 관장하는 임사부 부장이며, 최 목사는 노회 소속 교회 관련 일을 관장하는 정지부 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 K 대표가 다니는 교회에 임시 당 회장을 선임해 파송했으나, K 대표가 일부 집사 등을 동원해 파송된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자신들을 협박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협박함에 따라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순천 모 교회에서 K 대표와 일부 교인들이 예배 등 업무방해를 했으며, 특히 K 대표가 장로와 권사, 집사 그리고 목사들에게까지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25일 오전 9시 51분부터 54분까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톡으로 허위사실과 협박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전송하고, 이 내용에 따르면 내용이 허위사실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협박을 당해 봐야 아픔을 안다"고 경고했다.

이어 "K 대표가 목사들에게 1차 경고한다며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찾아가 시위도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안수집사가 목사들을 협박해 모욕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개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K 대표는 김 목사의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K 대표는 "김 목사는 순천노회 임사부 부장으로 인사권에 관여 할 수 있지만, 임명 권한은 없다"며 "이들이 파송한 목사는 노회 당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 등은 우리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데 불법으로 침입해서 '알가알부' 하는 것

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해당 목사들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계속 반복되어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이 내용증명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낸 것을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경에 K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A 할머니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K 대표의 반대로 A 할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침입해서 '알가알부' 하는 것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정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인의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6
2. 분묘기수: 3기
3. 개장사유: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 봉안장소: 제단법인 영호공원 봉안장 ☎054-751-9966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송선리 175-1)
5. 공고기간: 2019. 08. 06~2019. 11. 06(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봉안기간: 무연유골방안후 10년
7. 공고인(신고자):
 - ◆ 대구 달성군 농업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수
 - ◆ 분묘개장대행업체 영호공원 ☎ 1599-0550
8. 개장방법
 - ◆ 유언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도 감함.

공고 연월일 2019년 08월 06일
위 공고인: 대구 달성군 농업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수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 (1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3리 404-2 토지 소유자를 찾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

소유자	지번	지목
김종환	내포3리 404-2	대

◆도시가스 시공 및 시행사 연락처◆
시공사: (주)경인이엔씨 이문철
031-958-7000 / 010-3219-6683
시행사: 서울도시가스(주)
031-910-8500
2019년 08월 06일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윤용수[640428-1*****, 2019년 3월 7일 사망, 서울 금천구 독산로 8길 48-4(시흥동)]의 법정상속인 1.윤종천 2.노순임은 위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하고자 서울가정법원 2019년 단 51846호로 한정승인 사건을 신청하여 2019년 8월 1일자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윤용수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한정상속인: 1.윤종천 2.노순임
채권신고장소: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56번길 66, 101동 2503호 (명촌동, 삼성레이크아파트)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 (1차)

파주시 법원읍 대동리에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관련 토지 소유자를 찾습니다. 소유자는 아래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지번
김종환	파주시 법원읍 대동리 94-181(전)

도시가스 시공업체: (주)고산에너지
담당자: 김용준 031-924-7241
시행사: 서울도시가스(주)
연락처: 031-910-8554
2019년 08월 06일

광고문의

TEL : (02) 753-1134
FAX : (02) 753-1447
아시아일보 asiailbo.co.kr

수분, 자주 채울수록 열대야증후군은 싹~

내 몸에 가까운 물

생활에 힘이 되는 알찬정보 여기 다 있네~!

☑ "전세자금 지원 없나요? 보금자리주택은?"
☑ "내게 딱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 "아이 맡기기 너무 힘들어요...무슨 방법 없나요?"
☑ "둘째 대학등록금도 만만치 않는데...어찌지?"
☑ "연말정산 혜택 빠짐없이 챙기려면?"

www.briefing.go.kr

공감코리아

성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업그레이드’

“더위야 물렸거라~”

종로구,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 본격 추진

10월까지 속도제한노면표시·유색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개선 완료

성동구는 옥수초등학교와 행당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결정되어 8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옥수초등학교 금호로 39~근호로 30(145m) 구간, 행당초등학교 고산자로2길 46~왕십리로19

길 28(100m) 구간 등 2곳이다. 행당초 구간은 1,034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차량 및 보행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옥수초 구간 또한 교통정체 가중 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를 서

울시에 신청, 지난 7월15일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종점 표시 및 통합 표지판 신설, 속도제한(30km/h) 노면표시,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이며,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행당초 일부 구간에는 노

란색 미끄럼방지 포장 시범공사를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한다. 성동구는 상반기 행원초등학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옥정초등학교 LED 태양광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공사, 동명초, 율화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를 실

시한 바 있다. 아울러 20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위킹스쿨버스, ‘등굣길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시 해야 할 문제로 안전 장비사업은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종로구는 오는 9월30일까지 ‘2019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지 열섬 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본격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중앙차로 도로 등이다. 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일 최고 기온 시간대에 속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4일 이번 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도로 온도 낮추기에 나섰다.

폭염특보 발령 기준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주의보’ 또는 일 최고 기온이 24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 두 가지이다.

아울러 수목고사 예방을 위해 가로녹지대에 급수 또한 지원한다. 급수노선은 광화문역부터 신설동역에 이르는 종로길 좌·우측 차선이다. 살수차량 1대를 활용해 녹지대 물주기 작업을 실시하고 돈의동과 창신동 쪽방촌 인근 소화전을 이용한 폭염저감 살수 작업 역시 추진한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5월22일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폭염대책’을 수립했음을 밝힌 바 있다.

폭염 상황관리를 위한 운영기간은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중점 추진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이다. 평상시에는 폭염 대책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나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종로구 폭염대책본부를 구성, 구청사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반별 소관부서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 건강과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자 한다”면서 “도로 물청소는 물론이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등으로 주민 모두가 올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0년부터 물청소 및 분진흡입차량을 이용해 매일 50km 이상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물 사용량만 해도 월 평균 약 1,800톤에 이르는데 이때 사용되는 물은 지하철거 지하수 및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로 충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물청소 이후에는 분진흡입정소차량으로 남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도로먼지를 최소화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상관 기자

양천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홍보 적극 나서

관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 피해 예방

양천구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량의 주택을 매

입한 임대사업자(다주택자)가 잠적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안내해 관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안내문 5,500부를 제작했다. 관내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 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아파트 외에는 연 0.154%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은 40~6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갭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부터 가입요건이 완화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모르면 많은 임차인들에게 이번 안내문이 제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은 보증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례보증을 확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관악구, 청년 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시범운영

취업·주거·생활 등 공통 관심사 대한 정보공유하고 소통

관악구가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관악 청년 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을 조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4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은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취업·주거·생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청년활동 공간이다.

구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학동 녹두거리에 연면적 329㎡ 규모의 상가건물 공간을 임대해, △거실·서재 등 휴게 공간 △작업실, 회의실 등 공동체 활동 공간 △지역기

반 청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유 오피스를 갖춘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신림동쓰리룸’이라는 명칭은 지난 6월, 청년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고시촌, 원룸 또는 투룸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과 는 다른 공유 공간(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는 ‘신림동쓰리룸’ 개소를 기념하는 첫 행사로 청년들이 직접 가구 선정, 조립, 배치, 인테리어 등 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연박상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26일, 28일 저녁 6시에는 1차 연박상데이인 ‘가구 리프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참여자들과 새로운

가구가 배치될 공간을 직접 둘러보

는 라운딩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광승희 총괄매니저는 “본격적인 개소식 이후에는 ‘고민잡기 토요브런치’, ‘고민리셋 토크박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악구와 함께 ‘신림동쓰리룸’을 청년세대의 개성과 취향이 발휘되는 공공살롱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박상데이 2차 가구 조립행사는 7월31일부터 8월9일, 오후 2시부터 6

시까지 진행되며, ‘신림동쓰리룸’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사 후에는 주역의 짜장면 먹기 행사도 6일과 9일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향후 ‘신림동쓰리룸’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곳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취업·창업·연애·결혼·주거 등 청년들의 관심을 고려한 세미나 및 강의 개최 등 다양한 청년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용수 기자

‘구로구-남구청시 경제인 협의회’ 설립한다

구로구와 말레이시아 사라왈쿠 남구청시 간 경제인 협의회가 설립된다. 국가 간 경제인 협의회가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새롭게 시도하는 해외 우호도시 간 경제인 협의회라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달 말 이성 구청장과 기업대표단이 남구청시를 방문해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양 도시 간 경제인 협의회 구성 합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외 우호도시인 남구청시의 시승격 3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성 구청장과 관내 6개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다토 제임스 찬 카이신 시장을 예방하고 현지 주요기업을 시찰했다.

사라왈 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인

회의를 열고 경제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와 이후 협상을 통해 두 도시 관계자들은 올해 안으로 ‘구로-남구청시 경제인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로구와 남구청시는 경제인 협의회 의속한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 의향서도 체결하고 했다. 의향서에는 경제인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는다. 의향서 체결은 남구청시의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양 도시의 ‘경제인 협의회’는 각 도시 20여명씩 총 40여명의 경제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 정례회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상대 도시 진출을 바라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수 기자

마포대학 2기 ‘세상(世想)을 만나다’ 수강생 모집... 총 12회 강좌 진행

마포구가 주민들이 사유와 생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삶에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강좌 프로그램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의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마포대학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마포대학은 기존의 마포구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던 구민교양 대학과 시민교육을 합하고 그 밖에 통일과 민주주의 관련 내용까지 분야를 확장해 평소 듣기 힘든 각 분야 명사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포대학 1기는 지난 4월부터 7월

까지 진행됐다. “소통으로 더 크고 행복한 나”라는 주제로 양재진, 김민식, 손미나, 계승범 등 평소 듣기 힘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님들의 강연으로 꾸며져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마포대학 2기의 주제는 ‘세상(世想)을 만나다’이다. 주제는 다시, ‘세대를 만나다’, ‘세기를 만나다’, ‘세계를 만나다’ 등 3가지 테마로 나뉜다. 구는 그 안에 총 12가지의 강좌를 담았다. 주민들이 ‘세대’, ‘세

기’, ‘세계’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감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강좌는 9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마포평생학습센터 대강당이다.

첫 번째 강의에는 EBS 세바시 특집 강연, ‘달라졌어요’ 진행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해 유명한

이호선 교수가 나서 ‘직장, 결혼, 육아, 연애로 힘든 30대를 이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그 외, 10월10일에는 ‘응답하라 아우성’의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구성애 대표가 나와 ‘중년의 솔직한 성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 밖에, 팟캐스트 일당백을 운영하는 정박(정승민) 교수가 임진포 음악평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좌신청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몇대몇 VS 몇대몇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p>동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재현.</p>	<table border="1"> <tr> <th>기본과실</th> <td>A40 : B50</td> <td>A70 : B30</td> <td>A30 : B70</td> </tr> <tr> <th>사고상황</th> <td>자동차A, 자동차B 동시 진입</td> <td>자동차A 후진입, 자동차B 선진입</td> <td>자동차A 선진입, 자동차B 후진입</td> </tr> <tr> <th>적용과실</th> <td colspan="3">A40 : B50</td> </tr> </table> <p>이해하기 쉬운 그래프, 도표.</p>	기본과실	A40 : B50	A70 : B30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자동차B 동시 진입	자동차A 후진입, 자동차B 선진입	자동차A 선진입, 자동차B 후진입	적용과실	A40 : B50			<p>사고유형별 관련법규와 참고판례 제공.</p>
기본과실	A40 : B50	A70 : B30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자동차B 동시 진입	자동차A 후진입, 자동차B 선진입	자동차A 선진입, 자동차B 후진입											
적용과실	A40 : B50													

Google Play 교통사고 과실비율 App Store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accident.knia.or.kr)를 통해서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대로63길 보행환경·미관 개선

노후 가림막 철거한 후 폭 4m 길이 200m 보도 신설... 주민들 불편 해소

금천구가 금천구청역 앞 시흥대로 63길(발소길)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구(舊)대한전선부지에 보도를 신설하고 노후 가림막을 정비한다.

시흥대로63길(발소길)은 금천구청역 앞 옛터와 구(舊)대한전선부지 사이를 통과해 시흥대로 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구청과 역으로 통하는 길인 탓에 주민 및 직장인들의 발길이 붐비는 곳이다.

그러나 옛터위쪽에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마저 보도폭이 협소해 차도로 보행하는 사람까지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 설치 후 10년이 지난 구(舊)대한전선부지 경계의 노후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주)부영주택 관계자와 수차례 실무면담을 통해 대한전선부지 본 개발사업에 앞서 보도 설치와

가림막 정비를 우선 시행하도록 적극 요청했다.

(주)부영주택에서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부지 북측에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하고, 9월 초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29일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는 금천구청역 앞에서 필승아파트 부근까지 시흥대로63길과 접한 구(舊)대한전선부지 약 200m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노

후 가림막을 철거한 후 폭 4m의 보도를 신설한다.

보도조성에 따라 후퇴 설치되는 가림막에는 금천구를 상징하는 공공 디자인을 적용한다. 또, 현재 포화상태인 금천구청역 자전거주차장은 이용대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2배 이상 증설한다.

한편, 현재 대한전선부지에는 대형 종합병원과 공동주택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구는 올해 말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착공, 2023년 준공 및 병원 개원을 목표로 대한전선부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공사는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우선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마포구 '마포하우징' 가속 SH공사와 임시거소지원 맞춘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마포하우징'이 하반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마포구는 8월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6호의 주택을 유상 임차해 주거위기 가구에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4월 마포하우징의 첫 입주자를 배출한데 이어 현재까지 총 네 가정에 새 동자를 마련해 준 상태다.

지난달 26일, 마포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포구청에서 향후 마포하우징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구는 이달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택 6호를 유상 임차한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주택 개보수 과정을 거쳐 9월부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도 시작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한 주택 4호에 더해 이번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으로 6호를 추가, 총 10호의

주택을 유·무상 임차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더해, 올해 자체 매입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주택 10호에 대한 물색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2022년까지 총 95호의 거주공간을 주거위기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거주자들은 일정기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머물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평소 "입고 먹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되지만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집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모은 기금을 활용해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인건비도 건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다"며 "주민들이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막고 싶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도 가정을 지키고 희망을 잃지 않게 돕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귀주대첩 승전 벽찬 감동 그대로

관악구, 마당극 체험 어린이 참가자 모집

관악구가 2019. 관악 감감축축제에서 귀주대첩 승전의 순간을 멋지게 재현해 낼 어린이 마당극 참여자를 모집한다.

귀주대첩 마당극은 '2019. 관악 감

감축축제' 본 행사날인 오는 10월19일 오후 2시에 낙성대공원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마당극은 귀주대첩 승리 순간의 벽찬 감동을 재현해내고, 감감한 장

군의 설화를 풍자와 해학을 담은 마당놀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귀주대첩 마당극 체험은 관악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과 관악구청 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된다.

■김용수 기자

모집 기간은 오는 9월까지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khs79423@su-company.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귀주대첩 마당극 체험이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어린이에게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뜻깊은 무대인만큼, 많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성동구, 어린이 암벽등반교실 운영

성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달 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응봉산 인공암벽공원에서 암벽등반교실을 운영한다.

암벽등반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해 암벽을 오르기 때문에 투자시간에 비해 운동량이 높으며,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활동하며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응봉산 인공암벽장은 실의 인공암벽등반시설(난이도벽, 스피드벽)과 실내암벽을 모두 갖춰 기초 이론학습부터 등반 실습까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암벽등반교실 학생반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총 2기로, 기수당 3~4회 수업이 진행된다. 보험료를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이며 9월부터는 성인 대상 암벽등반교실이 운영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암벽등반교실은 온가족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레포츠로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혼밥·혼영·혼술족 모여라"

강북구, 2030세대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지원

강북구가 2030세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자기 돌봄 프로그램 '나를 더 내담게'를 운영한다.

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치 소외될 수 있는 '혼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기획됐다.

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은 오는 17일, 24일, 31일 총 3회에 걸쳐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1인가구 정리수납 및 공간 활용법 △소비습관 점검 및 경제교육 △내방 꾸미기 △소품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87-2567)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30대

면 누구나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한 대상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면 9월부터 1인당 3만원의 활동지원금을 3회 지급할 방침이다. 10월26일에는 보고회를 겸한 뮤지컬 감상 시간도 마련한다.

통계청 '2017년 인구총조사'에 따

르면 전국의 1인가구는 561만8,677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193만525가구로 34%를 차지한다. 이에 걸쭉 서울은 전체 1인가구 118만540곳 중 48%인 54만8,761가구가 2030세대로 조사됐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혼밥, 혼영, 혼술 등의 신조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1인가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사업이 1인가구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양천구 '야간무더위쉼터' 운영

양서중학교 체육관에 개별 텐트 20개동 설치

양천구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양서중학교 체육관에 무더위쉼터를 설치, 구민들에게 개방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밤 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면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8월의 시작과 함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는 폭염, 저녁에는 열대야로 인해 지치기 쉬운 날씨, 열기를 식힐 곳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무더위에 시달리는 구

민들을 위해 방학 중인 양서중학교를 개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는 최대 오후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함에 따라 야간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에는 약 130명의 구민이 야간무더위쉼터를 찾아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올해 야간무더위쉼터는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체육관 내에 3~4인

용 개별 텐트 20개동을 설치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단, 수요일 22시/ 일요일 19시부터 운영)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냉장고, TV 등도 설치돼 있으며 시원한 물도 제공된다.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최대 수용인원은 80명이다. 이

용 희망자는 방문일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쉼터의 안전을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운영상황 등도 살필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야간 무더위쉼터를 마련했다"며 "열대야에 합류하지 마시고 야간 무더위쉼터에 많이 찾아와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도봉구, 돌봄서비스 함께하는 '야간 부모교육' 운영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야간 부모교육'이 평균 30여명 이상의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구는 2008년부터 12년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주제, 강사 등을 선정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더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위해 '야간 부모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는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낮 시간대에 진행되어 직장이 있는 부모들은 참여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오후 7시30분으로 강의 시간을 배정해 전업주부와 워킹맘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야간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사회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동 사회성 프로그램'은 5~10세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아동요리 지도사의 지도하에 요리를 매개로 한 집단 활동을 운영한다. 참여 아동은 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배우고, 동시에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일거양득

의 효과를 내고 있다.

'야간 부모교육' 참여는 매달 도봉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2-2091-5222, 5235)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40명까지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8월22일 '야간 부모교육'은 '문제 유형별 우리아이와 의사소통하기'라는 주제로 권희정 부모교육 전문강사의 자녀 유형별 의사소통하기 이론·심화 강의내용을 자녀들에게 적용해보고, 시연해보는 강의로 진행됐다.

오는 9월~11에는 TCI(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해 부모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녀 양육법에 대해 부모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과 3월에는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신학기 우리아이 이미지 만들기'와 '또래관계 형성', '예뻐 보이는 아이로 키우기', 4월에는 '우리아이 스마트폰 건강하게 사용하기'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상관 기자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사람과 동물 공존’ 생명 존중 문화 조성

광명, 동물 간이 놀이터·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건강축제·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광명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 7월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반려견 가구 수는 약 12,856세대 16,302두로 전체 세대수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17년 8월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된 동물등록제를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 동물등록제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건강축제도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동물 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반려동물 놀이터, 테마파크 조성 등 동물복지 시설 조성

시는 동물복지 시설 요구 민원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반려동물 간이 놀이터를 조성한다. 소하동 안양천변에 반려견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배변 봉투함, 차광 그늘막, 간이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오는 2026년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동굴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인 테마파크는 동물용품점과 동물병원 등도 함께 설치하여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 확산 노력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반려동물 건강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달리기, 장애물넘기, 반려견 상식퀴즈 등 반려동물을 가족 및 반려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반려견 관련 시업 홍보 및 포토존 운영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

광명시는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는 반려동물 체험부스, 명사 강의, 동물상식 퀴즈 등 다양한 내용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전국 최초로 가상현실(VR)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기존 시청각각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반려동물 동반 교육의 위용성을 해결하고자 가상체험(VR)으로 운영하며, 가상체험을 통해 반려동물을 제대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4월 25일 안서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으며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고 유기견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반려견 관련 시업 홍보 및 포토존 운영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

△ 유기동물 발생 방지 노력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높

이고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 시 등록수수료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 2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진단, 치료,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애견 미용비 등 최대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유기동물 응급처치 및 피해자 등 지원 사업 등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방지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지만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존중 문화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며 “시민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웃을 이해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덕우 기자



‘의왕시 청년 취업캠프 2기’ 취업준비생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 취업캠프 2기 운영 성료

의왕, 소그룹 1:1코칭 진행 호응

의왕시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 운영한 ‘의왕시 청년 취업캠프 2기’가 지난 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 취업캠프 1기에 이어 진행된 이번 2기 캠프에서는 하반기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준비반과 면접 집중반 등 두 개의 과정을 운영했다. 총 15명이 참여한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준비

반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문제풀이 및 시험공부 방법과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유용한 고급 정보들이 많았으며 큰 만족을 나타냈다.

또한, 20명이 참여한 면접 집중반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기업별 입사지원서 및 1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교육하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그룹 1:1코칭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취업준비생은 “그 동안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코칭을 받을 기회가 없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NCS필기시험과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업캠프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군포문화재단, 15일 8·15광복기념 음악회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국악관현악단 및 소리꾼 남상일·김영임 등 출연

(재)군포문화재단은 오는 15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8.15광복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연다.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은 올해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군포시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라는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퍼져라 희망의 울림’이

라는 주제로 군포문화예술회관 야외 특별무대에서 광복절(15일) 당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음악회는 서희태 지휘자가 이끄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The song of sword〉(칼의 노래) 연주로 시작되며,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매 소리꾼 남상일, 김영임이 무대에 올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본 조아리랑’ 등을 구성진 목소리로 들려준다.

또한 바리톤 이호택, 소프라노 김

은경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나라〉 등을 부르고, 테너 이우진과 소리꾼 서정민, 메트로페라합창단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은 20세기 후반 한국사회의 모순과 저항을 온몸으로 담아낸 실천적 예술가 정태춘과 보컬리스트 박은옥 부부가 장식한다. 본 공연에 앞서 6시 20분부터는 평양민속예술단의 ‘민족의 염원’이라는 주제로 장고춤과 민속무용, 퓨전무용 등의 식전공연이 진

행할 예정이어서 더욱 흥분할 볼거리로 채워지는 음악회가 될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일제의 압제에 맞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자 이번 광복기념 음악회를 준비했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과 함께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그리는 100년’이라는 주제의 공공아트 대형그림 함께 그리기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9일까지 사전 신청해야한다.

공연 입장료 및 공공아트 참가비는 모두 무료이며, 이날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gunpoart.net)를 참고하거나 전화(390-3500~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박경남 기자

성남, 스마트국토엑스포 참가... 드론 행정 알린다

7~9일 코엑스에 성남관 차려... 관내 56개 드론 관련기업 성장 사례 홍보

성남시는 오는 8월 7~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에 참가해 드론(무인항공기 비행장치) 행정을 알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국내 최대 전시회다.

시는 엑스포 현장에 성남관을 차려 운영한다. 행사 3일간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1만여 명의 정부부처 관계자, 공간정보 관련 기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공·행정 분야에 드론을 접목한 규제혁신 성과를 홍보한다.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 3곳을 조성해 성남시 관내 56개 드론 관련기업의 성장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주 홍보 내용이다. 행정안전부가 정 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극 행정 사례다. 시는 드론 생태계 조성으로 제10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경제 분야 최우수상도 수성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이 자리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는 관제공역에 속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가 관제공역이어서 관내 드론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시는 드론 기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2월 18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성남지역 코이카 운동장,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실의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돼 최근 6개월간 민간 드론 기업체의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이 38회 이뤄졌다.

관내 드론 기업들이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드론을 띄워 열 수송관 파열사고의 위험요소를 조기 예찰·점검하는 내용도 소개한다.

드론에 장착한 열화상 카메라로 성남지역 내 20년 이상 된 땅속 열수송관 250km 구간의 지표면 온도 차를 측정하고, 3~10도 차이가 나는 곳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폭염 대비 열지도 구축, 공간정보시스템, 생활지리포털 등을 소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드론(총 5대)을 행정에 도입해 최근까지 무인항공기 비행장치를 1176번 상공에 띄웠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대 활용 건수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엑스포 현장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산업계 각 주체 간 첨단화한 공간정보 사업 정보 교류를 통해 4차 혁명 시대에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김포시, 인공지능 로봇 활용 생활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김포시가 100세 시대를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돌봄 기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상 위험에 매우 취약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해 보건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이 필요 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김포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제가독거 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돌봄 기본서비스를 선도하게 됐다. ‘다솜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독거노인의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올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중 200가구를 선정해 로봇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실증기간 중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건강, 위험성 분석 등 다양한 예측 서비스도 개발될 것으로 보여 노인복지에 한 단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심택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김동규 안산시의회회장 등 참석자들이 팔곡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첫 ‘산업단지형 햇살공장’ 들어선다

안산 팔곡 일반산업단지 기공식... 공장지붕에서 전력 생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1일 오전 10시 안산 팔곡이동 사업 현장에서 팔곡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산업단지는 모든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햇빛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장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국내 첫 산업단지형 햇살공장으로 조성된다.

기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김동규 안산시의회회장, 송경용(재)한국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햇살공장 조성을 위한 공동 협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팔곡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 팔곡이동 일원 143,099㎡ 부지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필지 1만6077㎡), 금속가공제품(9필지 2만9147㎡), 기타 기계 및 장비 업종(11필지 1만9373㎡)으로 구성되며 2021년 7월에 완공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전체 28개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 52,000㎡ 면적에 태

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약 49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다. 축구장 7개 크기의 공장지붕에서 햇살발전을 통해 연간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얻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분양계약 단계부터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가입해 각각 공장지붕의 면적만큼 자본으로 참여하고 생산된 전력을 한전 등에 판매해 이득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날 (재)한국사회복지재단(이사장 송경용)과 입주기업 햇빛발전협동조합 구성과 태양광발전사업 자금 조달 및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그 동안 기존 산업단지 공장지붕에 햇살공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와 건축 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마땅한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며 “신규로 조성되는 팔곡이동에 모든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

동조합형 햇살공장을 도입함으로써 공장에서는 물론, 지붕에서는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군포 첨단일반산업단지, 의왕 테크노파크와 인접하여 산업단지로서 최적의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다.

2일까지 상록구에 위치한 분양사무소에서 입주 및 분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입주 심의를 거쳐 23일까지 분양계약 체결이 마무리된다.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대출협약을 통해 전체 분양대금 대비 최대 90%, 최저금리 2.29%선에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팻토리온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팔곡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031-481-4947~8)로 전화하면 된다.

■서필명 기자

파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060 브랜드 슝매니저과정 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파주지역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2060 브랜드 슝매니저 과정’ 제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판매서비스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 전문 강사진들이 총 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2060 브랜드 슝매니저 과정은 지난 5년간 총 17차례 슝매니저 과정’ 제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현재까지 239명(64%)이 취업에 성공했다. 파주지역 내 물류·쇼핑매장이 확장 개장 예정으로 취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6기 교육생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인 지원이 이뤄진다. 2060 브랜드 슝매니저 과정은 지난 5년간 총 17차례 슝매니저 과정’ 제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현재까지 239명(64%)이 취업에 성공했다. 파주지역 내 물류·쇼핑매장이 확장 개장 예정으로 취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6기 교육생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 발굴·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한국노동복지센터(KLWC) 일자리지원팀(031-925-0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이메일(paramleh@naver.com)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

연천교육지원청, 여름방학 ‘학습동기 UP!’ 프로그램 운영

7일까지 초등학교생 32명 대상... 놀이로 배우는 국어 등 진행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학습동기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천교육지원청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연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및 신북은천 스포링풀에서 관내 초등학교생 32명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UP!’ 프로그램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습동기 UP!’ 프로그램은 ‘마음의 날’, ‘배움의 날’, ‘재움의 날’의 세가지 주제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다양한 방법

으로 학습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연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위(WEE)센터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마음의 날’이라는 주제 열린 프로그램에서는 테라리움 만들기, 내마음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및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배움의 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놀이로 국어, 수학 배워보는 활동을 운영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 셋째날에는 ‘재움의 날’이라는 주제로 포천 신북은천 스포링풀에서 물놀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날은 학생들의 학기중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천교육지원청 홍성순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열 기자

평택, 日 수출규제 긴급대책 회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방안 논의... 시·군·송탄출장소 등에 피해기업 접수센터 설치

평택시는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와 산하기관, 전문 유관단체, 기업 및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됨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피해 방지와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보복적 성격이 짙은 조치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기업이 없도록 금융, 세제 지원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특히 평택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가 많아 타 지역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련, 화이트리스트 제외 '평택시 피해기업 접수센터'를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설치하고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TF팀은 부시

장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과 관계기관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이번 사태의 콘트를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긴급 경영자금을 추경에 산에 편성하고 지방세 감면·기존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 등 재정 지원에 관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도와 함께 반도체 부품 및 장비의 국산화 가능성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 유관단체 및 기업관계자는 "이번 사

태가 단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평택시의 빠른 대책 마련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를 참관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경제 논리를 벗어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로 부끄럽고 치졸한 일본 정부와 보복적 조치이다"라고 성토했다. 평택시 시민단체 연합회는 일본제품 안 사기, 안 쓰기, 안 입기와 일본여행 안 하기 등 범시민 캠페인을 이번 사태가 종결 될 때까지 벌이기로 했다. **■김진태 기자**

포천시 소재 사회적 기업 '리맨' 구자덕 대표이사

컴퓨터 재제조 수익금 공익활동 화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중고 컴퓨터는 약 400만대.

이중 다시 이용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신제품을 다시 구매할 때 드는 비용도 적지 않지만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포천시 내촌면의 사회적기업 '리맨'(대표이사 구자덕)이 중고 컴퓨터를 신제품준으로 재제조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익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가 대중화된 오늘날에도 형편상 컴퓨터 구매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여전히 많이 있다.

반면, 관공서나 학교, 회사 등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수많은 컴퓨터가 전자폐기물로 버려진다. 이것이 안타까웠던 구자덕 대표(51)는 지난 2008년, 사회적기업 '리맨'의 문을 열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리맨'의 컴퓨터는 '중고 수리'가 아니라 '재제조'된 컴퓨터다. 중고 컴퓨터를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선별하고 특허받은 기술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후 새 부품을 사용해 조립한 것이기 때문에 새 제품과 다름없는 품질을 자랑한다.

기본 탑재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도 남다르다.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인 리퍼비시 파트너를 맺어 인증받은 정품 윈도우와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가격은 새 제품의 절반. 뛰어난 가성비에 사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서 포천시 내촌면의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사회적기업 '리맨' 구자덕 대표이사

2015년 12월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리맨은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새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데 많은 양의 화학물질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한 번 생산되었던 컴퓨터를 활용하면 자원 절약과 더불어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14년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2017년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리맨은 국내외적인 사회공헌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5월에는 포천시 '정서개선을 위한 배움터'에 사랑의 PC를 기증했고 2015년에는 포천시 소흘읍 소재의 다문화 국제학교에도 사랑의 PC를 기부했다.

2016년에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SBS 직원용 노트북을 재제조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희망학교에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리맨이 사회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부한 사랑의 PC는 현재까지 4만여 대

에 이른다. 리맨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점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라는 데 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리맨은 '한국IT재생산업협동조합'을 세워 관련 업체들과 연합, 잠재력이 높은 '컴퓨터 재제조' 생태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고 컴퓨터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노동집약적인 재제조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었다. 잠재력이 있음에도 생애 회사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것도 성장을 가로막는 큰 벽이었다.

구자덕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컴퓨터 재제조에 대한 구 대표의 신념을 믿고 손을 내밀어준 이들의 노력도 큰 도움이었다.

현재 사회적기업 리맨은 직원 수 38명, 연 매출 90억의 건실한 컴퓨터·IT기제조 판매 및 데이터 보안 폐기 회사다. 특허기술도 여럿 보유하고 있다. 2년 전에는 국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도 이루어 냈다. 창사 20주년이 되는 2028년,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구자덕 대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크지 않은 사회적기업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믿고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마중물일 거여 지역사회를 널리 이롭게 할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앞으로도 포천시의 함께 지역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아름다운 도약을 해나가 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홍열 기자**

22일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동두천시, 자율적 참여 안내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오는 8월 22일 '제16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대 전력소비(4,589만kw)를 기록한 이후, 에너지 중요성 및 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의 날에는 '밤9시부터 5분간 전국 동시 소등'과 '전력소비 피크시간대에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라는 주된 실천 행동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절전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40여 개소에 소등 참여 협조를 요청하여,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동두천시는 에너지 정책 및 시책에 대한 내용과 에너지의 날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8월 7일과 8월 22일 10시에서 12까지 지역행 광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중 일자리경제과장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행사의 주제에 맞게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의식 제고와 시민 홍보에 힘을 것이며, 제16회 에너지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문 닫고 냉방영업하기,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하기 등)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진 기자**

이현재의원 발의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공원·녹지 기부채납시 도로면적 포함 사업성 높여

사업 외 부지 공원 조성 허용하고 사업절차도 간소화

이현재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위 등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으나,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외)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현재의원 주도로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말까지 징수 유예(2차례 및 개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됐고, 국토부는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시 참고 설치를 허용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훼손지 정비사업)을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훼손지 정비사업이 주민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현재의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이현재의원은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담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병익 기자**

안양, 범계동 목련어린이공원 '제1호 생태놀이터'로 정비

7일 착공 11월 말 준공

낱고 오래된 어린이공원이 생태놀이터로 재탄생한다.

안양시는 범계동목련어린이공원(동안구 범계동)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내 제1호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한 목련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데 이어 특별

교부세를 포함한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목련어린이공원은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시기에 설치돼 25년 이상 경과된 상태다. 시는 7일 착공해 금년 11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4,408㎡공간에 새롭게 정비될 범계어린이공원은 노후한 놀이시설 교체뿐만 아니라 짙라인놀이대, 사면놀이시설, 토굴, 징검목걸이, 자연목 타잔놀이대, 통나무오르기 등 생태적 요소

들이 선보여진다. 특히 어린이는 물론,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운동공간, 야외체육시설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이 배치된다. 백목련 등 10종 3천주의 조경수목도 새롭게 단장하는 생태공원 곳곳을 장식한다. 최태호 안양시장은 "성장이 어린 아이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후공원을 정비해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남 기자**

나라사랑 태극기 500개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동두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두천시협의회(회장 배용순)는 지난 2일 가정용 태극기 500개를 동두천 일선건영휴먼빌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며, 광복절에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극기 전달 사업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계양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내

아파트를 선정하여 800여 개의 가정용 태극기를 더 전달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배용순 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수국선열 덕분이며, 광복절은 그 의미를 기리는 날이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를 당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태극기 전달 사업뿐만 아니라 범시민 캠페인, 가정사랑 캠페인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진 기자**

광주,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창업·취업과정 등 총16과목

광주시는 '2019년 하반기 여성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창업·취업과정 9과목, 외국어과정 4과목, 생활취미과정 3과목 등 총 16과목에 320명 수강생을 모집하며 강좌는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8월 30

일까지며 광주시 여성문화센터(광주시 중안로 197)에서 방문접수 혹은 팩스(031-760-1413)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방문접수 시 신분증과 4개월 수강료 인 4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정 세대원, 장애인 등은 증빙서류 지참 시 수강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여성문화센터(031-760-2129)로 문의 또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영호 기자**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모집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임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국가(지방)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로 2년 이상 경력에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자, 관련 분야 대학교 정(부)교수 경력 4년 이상,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7년 이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인 자, 고양시 화훼분야

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화훼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는 자, 박람회·축제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 과거 경영 실적 및 경영 능력,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 받는다. 인사추천위원회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 계획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2인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 중 이사장이 선정한 1인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발하

이천 여성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외국어 등 5개 분야

이천시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19년 제2기 여성문화대학'을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보화, 외국어, 문화·교양, 건강·생활, 자격증 등 5개 분야, 총53개 강좌로 운영한다. 접수는 8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천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https://www.icheon.go.kr/women)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컴퓨터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모집 첫날인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성회관 정보화실을 개방하여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화실 방문시 본인 명의

인내받을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직접연계를 통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도시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각 분야의 긴밀한 소통을 돕고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시민 교통편의가 증대되고 수도권의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031-345-35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남 기자**



안성혜계소 전면 파사드.

안성(서울방향)혜계소, 공사비 10억 투입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

안성(서울방향)혜계소(소장 박우필)는 8월 5일 약 1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안성 남사당을 접목한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였다.

이번 공사는 올해 초 내부 리뉴얼을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지원과 혜계소의 투자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3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객의 편의에 맞춰 지붕개량, 캐노피증축, 화장실 시공 개선 공사를 설치하였고, 외부

파사드를 안성의 남사당 이미지를 접목하여 현대식으로 웅장하게 꾸며 고객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서울방향)혜계소 박우필 소장은 "공사 때문에 중단되었던 '안데스 음악공연'이 재개되었고 지난주부터 추가공사로 화물차 기사를 휴식을 위한 '화물차라운지' 신축과 '오수정 화조' 증축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고객 편의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편종국 기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100억 특례보증 지원

용인, 덕성2산단 용지 우선공급 포함 4개 장단기 대책 발표

용인시는 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에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4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끝까지 거부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우선 기업SOS지원센터에 '용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5일부터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또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100억 원

의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3년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3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2~2.5% 내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내엔 현재 99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가 기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단기대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첨단소재나 장비

제조업체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 두 번째 공공산업단지인 처인구 이동읍 덕성2산단의 용지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나 장비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9만5000㎡ 규모의 덕성2산단은 최근 시의회에서 타법인 출자 등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 설계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관내에서 이뤄지는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공시화한 만큼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관내 기업들이 오늘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시장은 반도체 중심도시의 큰 그림을 구상하기 위해 실리 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서부지역 방문을 마치고 1일 귀국길에 올랐다.

■황성철 기자

남양주 '2019 평화 콘서트'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초청

14일 다산아트홀서 개최

남양주시는 광복74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다산아트홀에서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G.V.M)을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합창공연을 개최한다.

(사)국제문화공연교류회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2019 평화콘서트'라는 주제로 국경을 넘어 하나 되어 부르는 아리랑으로 감동을 전한다.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G.V.M)은 1999년 임재식(現 단장 겸 상임지휘자)에 의해 창단됐으며, 임재식 단장은 1983년 서울예고 졸업, 1989년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고등음악원을 수석 졸업 한 후 후안 에스테반에게 지휘를 사사받았다.

이후 비아 마드리드 상임 지휘자, 미라 플로레스 합창단 지휘자, 스페인 국영방송국 합창단 테너장을 역임하며, 먼 나라 스페인에 음악으로 한국을 알리는 지휘자가 됐다.

이번 '2019 평화콘서트'에는 스페인 최고 RTVE(스페인 국영방송국) 합창단의 80명 단원 중 최고의 단원 25명을 선발하여 피아니스트 Alexandre Alcantara와 방문할 예정이며, 임재식 지휘자를 제외한 모든 단원은 스페인인이다.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은 스페인 내에서는 이미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1부에는 스페인의 전통 음악 사르수엘라(Zarzuela) 2부에서는 한국가곡과 민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명예단장인 전 교육부 장관 이돈희는 "임재식 지휘자는 한국인 최초로 '스페인 국왕 심장훈장'을 받았으며,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함과 민간의 교상절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G.V.M)과 함께하는 '2019 평화 콘서트'는 남양주시티켓에매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는 다산아트홀(031-590-4361, 4358)로 하면 된다.

■손복선 기자



과천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과천시는 2일 관내에 위치한 서울랜드 야외수영장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재영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과천소방서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했다.

과천시는 2일 관내에 위치한 서울랜드 야외수영장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재영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과천소방서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했다.

■이성규 기자

13~18일 제5회 대한민국 국제기타페스티벌·국제기타포럼

양평·한국기타협회 주최...수자파크·군민회관서 개최

양평군과 한국기타협회가 주최하고 경기MICE뷰로가 후원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제기타페스티벌 및 2019 양평 국제기타포럼이 오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양평 수자파크와 군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은 그랑기타상상을 단장인 김성진(한국기타협회 부회장이) 예술 감독을 맡아 국내외 유명 교수진의 마스터클래스, 제작악기 전시회, 기타듀오 'Le Due'의 시연회와 축하공연, 프린지 콘서트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학장을 지냈던 기타리스트 라인베르트 에버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페페 후스티시아,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젊은 거장' 안드레아스 폰 방엔하임, '일류에슬가'라고 불리는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타, '진정한 음악가'라고 평가받은 로브산 마메드롤리에프, 뛰어난 기술과 독창성을 가진 이언 와트, 일본의 젊은 거장 토모노리 아라이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기타계의 '유유시인' 이성우, 대표적인 여류 기타리스트 허원경, 섬세한 표현력과 트레몰로로 인정받는 박규희 등 화려한 교수진이 참여한다.

14일과 16일에는 국제기타공쿠르예선과 본선이 진행되고, 매일 저녁마다 양평 수자파크 및 군민회관에서 연주회가 열려 참가자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들려준다. 17일과 18일에는 양평 국제기타포럼이 '자연, 음악 그리고 현 거장' 안드레아스 폰 방엔하임, '일류에슬가'라고 불리는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타, '진정한 음악가'라고 평가받은 로브산 마메드롤리에프, 뛰어난 기술과 독창성을 가진 이언 와트, 일본의 젊은 거장 토모노리 아라이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기타계의 '유유시인' 이성우, 대표적인 여류 기타리스트 허원경, 섬세한 표현력과 트레몰로로 인정받는 박규희 등 화려한 교수진이 참여한다.

14일과 16일에는 국제기타공쿠르예선과 본선이 진행되고, 매일 저녁마다 양평 수자파크 및 군민회관에서 연주회가 열려 참가자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들려준다. 17일과 18일에는 양평 국제기타포럼이 '자연, 음악 그리고 현 거장' 안드레아스 폰 방엔하임, '일류에슬가'라고 불리는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타, '진정한 음악가'라고 평가받은 로브산 마메드롤리에프, 뛰어난 기술과 독창성을 가진 이언 와트, 일본의 젊은 거장 토모노리 아라이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기타계의 '유유시인' 이성우, 대표적인 여류 기타리스트 허원경, 섬세한 표현력과 트레몰로로 인정받는 박규희 등 화려한 교수진이 참여한다.

14일과 16일에는 국제기타공쿠르예선과 본선이 진행되고, 매일 저녁마다 양평 수자파크 및 군민회관에서 연주회가 열려 참가자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들려준다. 17일과 18일에는 양평 국제기타포럼이 '자연, 음악 그리고 현 거장' 안드레아스 폰 방엔하임, '일류에슬가'라고 불리는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타, '진정한 음악가'라고 평가받은 로브산 마메드롤리에프, 뛰어난 기술과 독창성을 가진 이언 와트, 일본의 젊은 거장 토모노리 아라이가 참여한다.

저변확대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 제5회 대한민국 국제기타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윤원준(한국기타협회 회장)은 "1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련도 있었지만 애써주시는 분들의 수고와 도움에 힘입어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기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즐기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국제기타리스트 허원경, 섬세한 표현력과 트레몰로로 인정받는 박규희 등 화려한 교수진이 참여한다."

이번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양평 수자파크는 초가원, 쉬자 정원, 야생화 정원, 치유 숲길, 명상의 숲, 생태습지, 유아숲체험원, 어린이놀이터 등 휴양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페스티벌 참가자 가족이 여름 휴가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조병익 기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찾아가는 과학체험전시 7일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

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첨단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9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놀이터> 전시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양주시에 소재한 우석헌자연사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는 과학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서비스를 제공,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 10개관에서 13일씩 총 130일에 걸쳐 이동전시를 진행하며, 그 첫 번째 전시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크게 '찾아가는 과학관'과 '찾아가는 과학놀이터' 등 2가지 분야로 설치하며 관람료와 체험료는 무료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과학관'은 여러 동식물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 이를 모방하는 생체모방과학을 주제로 '공존의 혁신, 생체모방(Innovation of Coexistence Biomimicry)' 전시가 열린다. 과학관은 재료, 기능, 로봇(인공지능), 천문 우주 등 4개 존으로 구성해 생체모방 관련 다양한 사례를 14개 코너에서 전시한다. 박물관 야외마당에 설치하는 9동의 컨테이너에서는 상어가죽 모방 수영복, 소리와 비슷한 스크류, 딱따구리와 안전헬멧, 장수풍뎠이 모방 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찾아가는 과학놀이터'는 물리, 화학, 생물, 에너지 등 기초과학과

회암사지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크게 '찾아가는 과학관'과 '찾아가는 과학놀이터' 등 2가지 분야로 설치하며 관람료와 체험료는 무료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과학관'은 여러 동식물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 이를 모방하는 생체모방과학을 주제로 '공존의 혁신, 생체모방(Innovation of Coexistence Biomimicry)' 전시가 열린다. 과학관은 재료, 기능, 로봇(인공지능), 천문 우주 등 4개 존으로 구성해 생체모방 관련 다양한 사례를 14개 코너에서 전시한다. 박물관 야외마당에 설치하는 9동의 컨테이너에서는 상어가죽 모방 수영복, 소리와 비슷한 스크류, 딱따구리와 안전헬멧, 장수풍뎠이 모방 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찾아가는 과학놀이터'는 물리, 화학, 생물, 에너지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주제로 2~30여점의 체험물을 연출하는 '플레이 사이언스(Play Science)' 체험전시이다. 전시는 작동체험, 놀이, 비교·관찰 등 3개 존으로 구성해 도르래의 원리, 중력파와 궤도, 자이로스코프 등 과학의 기본원리를 관람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연출한다.

응용과학을 주제로 2~30여점의 체험물을 연출하는 '플레이 사이언스(Play Science)' 체험전시이다.

전시는 작동체험, 놀이, 비교·관찰 등 3개 존으로 구성해 도르래의 원리, 중력파와 궤도, 자이로스코프 등 과학의 기본원리를 관람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연출한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과학체험전시가 여름방학 기간 관람객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심 있는 많은 아이들이 과학의 즐거움과 신비로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향후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시와 이벤트를 선사하는 등 양주시의 유일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오는 8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문양희 기자

청정 가평군 '녹색환경 그린도시' 만든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활발

가평군이 고효율·저비용 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 3만여 가구중,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여 가구에 지원돼 6.7%를 보이고 있다. 설악면이 17.2%로 가장 높은 반면 청평면은 3%로 최하이다.

군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도 그린홈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총 66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태양광·지열 등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30가구가 완료된 상태다.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KW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kWh인 단독주택은 연간 약 6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등 친환경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군은 올해 초 사업신청서를 우선 검토하고 지원마을을 선정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태양광 kW당 50만원으로 최고 3MW까지, 태양열은 m당 5만원에 최고 20㎡, 지열은 3.5MW에 50만원으로 최고 17.5MW까지 지원했다. 그린홈은 개별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이다. 군 관계자는 "그린에너지 적극

사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에너지 강국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보급함으로써 청정가평 그린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0년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북면 목동1리 및 이곡2리 2개 마을에 LPG 저장설비 탱크(2.45톤) 2기씩 각각 설치하고 지하배관 총 10.37km를 연결해 270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기준, 기존 난방비의 40~60% 절감효과가 있는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률이 3만200여 세대 중 33.3%인 1만 100여 세대 이른다.

■석동희 기자

수원 장안구, 광고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강력 대응

수원시 장안구는 광고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주민불편해소 등 사후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고상수원보호구역 내 총 8만34㎡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최종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제지역 내 지속적인 불법

영업행위와 환경파괴, 난개발 등에 따른 문제를 적극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구에서는 구청장실의지를 반영해 행정지원과장 등 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구는 음식점 무신고 업소 및 신고업소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단속하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등은 건축과에서 점검하게 된다.

또 생활안전과에서는 가족분노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과에서는 오수관로 설치 등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교통과는 행태

철 정주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T/F팀 구성 후 구청장실에서 처음으로 열린 지난 2일 회의에서는 부서별 추진과제와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현장을 직접 찾아 둘러봤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광고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로 우려되고 있는 불법행위, 수질오염 등 주민불편과 불이익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T/F팀을 주축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살피고 또 살피주세요!

문지마범죄에서 아동상범죄까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당신 결의 안전지킴이”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실종이동찾기센터
182

그린이넷
스마트보안관

성범죄자
알림e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 16~17일 송도서 개최

보검·도터·이사배 등 유명 크리에이터 라인업 확정... 무대행사·팬사인회 및 이벤트존·부스 등 운영

인천시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와 한중문화예술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이 오는 16일과 17일, 2일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차세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국제 행사로, 인천시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1인 미디어의 저변확대와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최하는 행사이다.

구독자 343만명의 보검을 비롯해

25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크리에이터 도터, 2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와 킥티브이(TV), 섭이는 못말려 등 국내 정상급 크리에이터가 참석이 확정 되어 무대행사와 팬사인회를 통해 관객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또한, 1인 미디어 중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인 게임은 물론 키즈&에듀, 푸드&먹방, 헬스&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로 구성된 이벤트 존과, 크리에이터와 연결은 물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제품과 방송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여개국의 다양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비즈니스 매칭존을 구성해 행사기간 내내 관련기업의 상담과 국내·외 크리에이터와의 연결은 물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제품과 방송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충진 인천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성공리에 마친 1회 행사를 통해 이번에는 국·내외 유명 1인 방송제작자들과 예비 제작자들을 포함해 2만여명 이상의 관객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1인 미디어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인천의 지역대

표 특화 전시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홈페이지(www.iifst.co.kr)를 통해 사전예매가 진행중이며, 행사 개최일 전까지 사전등록 시 무료로 행사장 입장이 가능하다. **■배용환 기자**

인천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폭염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인천광역시시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

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

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

1,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2019년 10월16일~2020년 4월30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용환 기자

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 최신시설로 업그레이드

LED 멀티비전 설치·CCTV 연계 재난상황 실시간 관제

강화군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청 5층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에 LED 멀티비전과 음향시스템 등을 새로 설치해 CCTV 통합관제실의 영상을 연계함으로써 재난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해 졌다. 또한, 기상청

의 위성영상, 레이더영상, 폭염현황, TV뉴스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좁고 노후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선하기 위해 탁자 및 의자를 교체하고, 물품 보관 및 장비별도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회의 등 상황실 운영의 효율을 도모했다.

■이용우 기자

중구,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모집

12~23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서 신청

중구는 2019년도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원아 모집 신청을 받는다.

원아 모집 신청을 받는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오는 10월1일 개원 예정인 영종1동의 영종센트럴푸르지오 자이 등 3개 신축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입소대기 신청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보육연령별 원아를 모집한다.

중구는 올해 3월 어린이집 2개소

를 개원해 총 1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개원을 앞둔 푸르지오자이인하수 어린이집(59명), 스카이스티자이 어린이집(59명), 오션하임 어린이집(54명) 등 총 172명을 원아모집한다.

구는 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되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입소대기 점수가 높은 영종지역 거주 주민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동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위한 가을꽃 식재

도심 곳곳에 금어초·안젤로니아 등 4만4000본

동구는 도심 곳곳의 화단과 가로 녹지대 등에 가을꽃을 심고 녹지를 정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다.

구는 이를 위해 금어초, 안젤로니아, 메리골드, 천일홍과 같이 가을동안 아름다운 화단을 연출하는 초화 4만4,000본을 계약공원사업소에서 무상공급 받았다.

오는 23일까지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 등 관내 공원과 가로녹지

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각 동 주요공간의 화단과 가로 녹지에 식재해 가을의 아름다움과 함께 계절을 한껏 밝힐 계획이다.

이번에 식재되는 메리골드는 강렬한 주황빛으로 녹음의 나무들과 어우러져 초목 앞에서 나엽이 지는 계절의 감동을 한층 더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꽃말을 지닌 천일홍은 보라색의 고귀함과 품위를 뽐내며 주민들에게 생기와 품격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홍과 흰 꽃을 피워내며 은은한 향기를 뽐내는 안젤로니아와 꽃모양이 마치 헤엄치는 금붕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금어초가 만개해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오는 9월에는 가을의 정령사 국화꽃을 심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초화류 식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자연의 미적유희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득 기자

인천경제청, 송도 5공구 내 글로벌파크 3, 4지구 공원 조성 완료... 이달중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글로벌 파크 3, 4지구에 대한 공원 조성이 마무리돼 이달 중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한 연구구 송도동 193-1번지, 193-5번지 일대 글로벌파크 3, 4지구에 대한 공원 조성 공사를 1년9개월만인 지난달 말 완공했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파크 3, 4지구에는 10만 8,775㎡ 면적에 소나무 등 큰나무 4,291주를 심어 충분한 녹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 6계절별 꽃과 향기

를 즐길 수 있도록 영산홍 등 작은 나무 3만3,046주와 구절초 등 초화류 4만5,000본이 식재됐다.

글로벌파크 3지구는 책임기 좋은 공원을 주제로 카페테리아, 북카페, 야외공연장을 설치, 도서 및 문화활동 등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했고 또 아름다운 야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꾸몄다. 글로벌파크 4지구의 경우에는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운동을 즐기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글로벌파크 4지구의 경우 송

도 내 어린이 물놀이터가 없는 점을 고려, 조합놀이대, 물놀이기구, 샤워장, 세족장, 그늘막 쉼터 등이 반영된 대형 물놀이터를 조성해 어린이들이 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의 중심 녹지축인 기존 미추홀공원과 누리공원 및 글로벌파크 2,3,4지구의 경우엔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을 이용해 이용객들이 운동을 즐기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인천시와 영상은 이메일(mspark0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내부

청소년한꿈카페

여름정복 대작전

한꿈 여름 파티 진행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한꿈카페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 3일에 ‘여름정복 대작전! 한꿈 여름 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소년한꿈카페는 청소년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실 수 있는 장소와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중국의 인기 간식인 당후루를 만들어 보고, 보드게임으로 빙수 만들기 재료를 획득한 후 자신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가이드 발간

서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가이드’ 북 1,800부를 발간했다.

서구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 6월7일 공식적으로 발대해 7월말 현재 1,70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을 모니터링해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활동수첩)’은 서구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취약계층을 만날 때 초기에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인천 홍보·시민 소통 영상 콘텐츠’ 공모

인천시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스마트월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소통할 수 있는 ‘인천 홍보·시민 소통 영상 콘텐츠’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월은 광고용 엘디(LED) 유리판으로 설치된 벽면을 스크린 삼아 영상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공정보 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등의 감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응모 자격은 제한 없이 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은 1기가바이트(GB) 이내(5분 내외) 영상 확장자는 엠프(MP)4를 권장한다. 캔버스 화면크기는 16x 3.5m이고, 해상도는 1920x420픽셀이다. 신청서와 영상은 이메일(mspark0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내부

의 빙수를 만들어보는 활동(랜덤 빙수, 달라달라)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여러 가지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한꿈카페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한꿈카페의 프로그램에 관련한 문의사항과 참가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수련관 홈페이지(www.bpy.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2-500-2233)로 문의하면 된다. **■배용환 기자**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100일

일자리 창출 20명·매출 5억5000만원 달성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다시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강호 청장의 말이다.

남동구는 지난 4월16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100일만에 12개 입주기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20명, 매출 5억5,000만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및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공간 및 운영비 무상지원은 물론,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운영했다. 이러한 운영방식이 창업의 부담을 줄이고 뛰어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배용환 기자

인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특별 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30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편의점 내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하여 시민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용환 기자

인천시, 시민에너지참여단 모집

인천광역시시는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에너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많은 인천광역시 시민에너지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에너지참여단은 인천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시 인천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속의적 민주주의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에너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30명 이내로 지역별, 성별, 나이별 적정인원을 안배해 선정하며, 활동기간은 8월19일부터 12월5일까지이다. 지원자격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으며, 인천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 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에너지기본계

■배용환 기자

미추홀구, 한세원 신임 부구청장 취임

미추홀구 신임 부구청장에 한세원(58) 지방부이사관이 5일 취임했다.

한세원 신임 부구청장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조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하며 즐길 수 있는 원도심 명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청년창업지원센터 정운호센터장은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었다”면서 “전국 최초 공간 및 운영비 무상지원으로 기업들의 고정지출비용이 줄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다양한 성과들을 달성하면서 청년 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성과들로 인해 현재는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우수 창업 사례로 견학을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남동구가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이번 점검은 10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시민,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 확신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제로(ZERO)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용환 기자

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 정책 연구, 지역 로드맵 마련 및 에너지 수급 분석 등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있는 ‘인천시 시민에너지참여단 모집 공고문’에서 지원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속의적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민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인천시의 에너지 정책 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문한 한 신임 부구청장은 인천시 건설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을 거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장,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서실장 등 39년간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국가사회발전 기여 대통령 표창 및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유공 표창 등 다수의 노력이 수상한 바 있다.

■김영득 기자

홍성군, 청사 이전 9개 후보지 결정

청사입지실무위원-용역사-담당자 등 합동 현장 방문 돌입

충남 홍성군이 청사 이전 9개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현장 방문 등 입지 선정에 위한 최종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부터 청사입지실무위원, 용역사, 담당자 등이 합동으로 청사 입지 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당초 주민들이 신청한 후보지 10곳 중 1개소는 만 19세 이상 관내 거주민 300명 이상 서명 요건을 불충족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청사 이전 후보지 제안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관내 거주민 300명 이상 서명, 지역단체 주체로 신청, 읍·면 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추천

및 읍·면장 경우, 부지 면적 2만㎡ 이상과 후보지 면적 중 70% 이상의 매매 동의서 첨부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군이 제안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최종 후보지 9개소는 홍성읍 8개소와 광천읍 1개소로 밝혀졌다.

△홍성여고 맞은편 대교리 216-3번지 일원 2만4306㎡ △소항리 공동묘지 248-14번지 일원 8만343㎡(국·공유지 6만4769㎡ 포함) △장대인 체육관 맞은편 소항리 350-18번지 일원 4만2005㎡ △백월산 아래 월산리 산 2-2번지 일원 10만16831㎡ △육암택지개발지구 내 육암리 1228번지 일원 4만5542㎡(국·공유지 3만378㎡ 포함) △홍주요양병원과 농어촌공사 인근 월산리 530-20번

지 일원 4만2133㎡ △현 청사 인근 오관리 61번지 일원 3만5248㎡(국·공유지 3만2256㎡) 포함 △광천읍 지기산 오토캠핑장 인근 광천읍 벽계리 382-3번지 일원 5만2305㎡ △세광아파트 인근 오관리 715-9번지 일원 3만18085㎡(국·공유지 1149㎡ 포함)이다.

또한, 군은 오는 12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9개 신청단체와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군, 군의회간 신청사 건립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서 내용에는 부지 결정 시 견여한 결과 수용, 불필요한 갈등 분열 자제 등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9월에는 예비 후보지 5개소를

결정, 입지 여건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선호도도 조사해 주민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예비 후보지 5개소 결정 후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신청사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균형개발 및 일체 잔재 청산 등을 위해 군 청사 이전은 주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논산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 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논산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금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6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위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참전 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 유공자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훈 정책 발굴에 앞장 서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이승민 기자

홍성소방서 '2019 소방관서 종합평가' 중간 보고회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5일 오전 9층 대회의실에서 '2019 소방관서 종합평가'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방관서 종합평가 분야인 음주·교통사고 예방 등 기본과제, 각 분야별 7개 시책의 국민행복소방정책, 청렴도 등에 대한 평

가지표별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세부 지표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조사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등 하반기 추진 방안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이 폭 넓게 개진되

는 자리가 됐다.

전영수 소방행정과장은 "각 분야별 시책이 적기에 추진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통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기자

예산소방서 여름철 폭염 피해 주의 당부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장마가 끝나고 연일 30℃ 이상 치솟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운영 환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발생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과 고른 영양분을 섭취하며, 온열로 인한 한기증·두통·근육 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여름철 온열 질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9월30일까지 소방서 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차량을 대상으로 생리식염수, 이온음료, 얼음조끼를 보유하는 등 폭염 관련 환자 발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부일 화재구조팀장은 "폭염 주의보 발령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을 삼가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김영래 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 해수부 1차 분석 평가 합격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치단체 수산연구기관 최초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에 도전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5일 '국가공인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시험평가' 1차 분석 평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도는 분석 및 현

장 평가를 통해 기관의 해수 수질 분야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 △아질산염(NO₂-N) △질산염(NO₃-N) △암모니아성 질소(NH₄-N) △인산염(PO₄-P) △규산염(SiO₂) 등 김 생육에 필요한 용존무기질소량을 판단하는 5항목에 대한 수질 분석능력 시험 평가에 합격해 현장 실사 평가 만을 앞두고 있다.

진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분석 평가에 합격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 내 분석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를 거쳐 합격 시 기관 인증서를 발급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환경 여건 속에서 수질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공인을 획득해 시험 분석 능력을 인정 받고 신뢰 받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황선봉 예산군수, 직무수행 만족도 충남도 내 5개월 연속 최고

10개월 누적 평균 76.2%... 꾸준히 높은 추세 유지

황선봉 예산군수의 직무 수행 만족도가 79.5%에 달하면서 충청남도 15개 기초단체장 중 5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영호)과 (주)세종리서치(대표 권주환)가 지난 달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과 충남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평가 결과, 황 군수의 만족도는 79.5%로 지난 달과 비교해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 군수의 직무 수행 만족도는 10개월 누적 평균이 76.2%로 꾸준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정 평가는 전월 대비 2.6% 하락한 1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황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인 현장 행정과 섬김 행정을 잘 실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예산군청 천백년광장, 봉수산 자연휴양림, 무한천 체육공원, 산성리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물놀이장을 개장해 어린이와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T/F팀을 구성해 시기 및 분야별 폭염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무더위쉼터 운영, 경로당 냉방 지원, 그늘막 및 물리포그 운영, 얼음물 나눔 냉방고 운영 등을 통해 무더위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어르신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복지시설이 갖춰진 144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입주목표를

추진 중에 있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산업단지 8개 농공단지를 조성해 민선6기를 시작으로 지난 5년 간 157개 기업을 유치하며 3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에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지역경제 파장을 방지하고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 대책 강구, 관내 기업체 피해 현황 조사,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및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아울러, 명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예산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을 2개 축으로 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시작으로 4월말 개통한 예산의 랜드마크인 예산호 출렁다리 8월 현재 180여 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예산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250% 증가하는 등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렁다리 개통으로 총 33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예산군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옛 보건

소를 활용한 신활력작소 조성사업, 옛 군청 별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840여 원을 투자해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군은 2월 '함께 이어 가는, H2O 공동체 배다리마을' 사업에 공모 신청해 현장 실사 및 종합평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사업 선정으로 주교리 일원 4만 8539㎡ 부지에 2021년까지 3년 간 총 92억4800만원(국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주교안심마을 정비사업, 안심 등·하꽃길 정비사업, 주거복지 확충사업, 생명발전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음창작소 조성사업, 와유하우스(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지역 연결고리 조성사업 등이다.

군은 이처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호응하는 정책 시행을 펼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평가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번호 무작위 생성 표집률(RDD) 100% 방식으로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성인 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통계분석은 각 변수별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1.78%이며 응답률은 2.1%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세종리서치(<http://www.sejong.kr>) 또는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http://www.citizenmed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래 기자

청양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안전표지판·119구급함 점검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4일 칠갑산 일원에서 등산객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산악 안전표지판 및 119구급함 등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했다.

이 날 점검은 최근 등산, 캠핑, 레포츠 등 산업을 이용한 치유 목적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실시됐다. 통계청 소식이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등산, 10년 동안 1

위"라고 알렸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산악위치 표지판(국가지점 위치 표지판) 확인 △간이 구급함에 있는 응급약품 보충 △유요기간 경과 약품 폐기 등 정비를 실시했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산악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산악표지판 점검.

(주)오래들
Oredde Corporation

2019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대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자를 위한 활력충전 울트라포맨

5중 복합 건강기능식품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아연은 체내 200개 이상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대사과정이나 반응조절에 관여하며 RNA/DNA와 같은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므로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관여하고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2(리보플라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여러가지 효소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열량 대사에 중요하며 세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물질대사에 참여합니다.

비타민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E는 지용성비타민으로 세포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물질로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활력이 필요하신분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남성 ●과도한 업무로 지치거나 힘든분 ●과격한 운동을 자주 하는 분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신 분 ●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 ●건강한 신진대사를 원하는 분 ●체력관리가 필요하신 분 ●사람에게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노화로 인해 전립선 건강이 나빠진 남성 ●메노 후 여성이 노년기에 노폐물 배출이 잘 안되는 분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 ●오래 앉아 계시는 분 ●전립선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런칭기념

3개월분 + 1개월분
88,000원

6개월분 + 2개월분
148,000원

주원료: 아연, 비타민B2, 비타민E, 소팔메토, 셀렌(셀레늄)
부원료: 홍삼, 마카, 옥타코사놀, 은행잎, 산수유, 마늘유, 비수리, 오자
섭취량: 1일 1회, 1회 1캡슐(500mg)

주문전화 080-790-5000 온라인주문 www.arambi.kr

완도군 '블루 이코노미' 연계사업 추진

5대 프로젝트에 해양치유산업·해양바이오헬스·해양관광 포함

완도군이 전남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완도의 즐거운 변화로 이어 가기 위해 연계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 7월1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대 프로젝트는 바다, 섬, 갯벌, 기능성 천연 자원 등 전남의 블루 자원을 활용한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메디컬, 블루 트랜스포트, 스마트 블루시티 등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5대 프로젝트에는 완도군에서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오헬스산업, 해양관광 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군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 중에서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는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를 전남의 의료 인프라 및 천연물·치유 자원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남형 첨단의료 복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완도 해양치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천연물의약-헬스케어-기능성식품-해양바이오를 연계한 '바이오 의약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천연물 의약품, 기능성 식품 원료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해조류 전문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시설 및 '스마트 팜'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다.

완도군은 오는 2021년까지 320억 원의 예산으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해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 스포츠

재활 치료 등 의료관광 산업 수요에 대비해 가는 중이다.

또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110억원을 투입해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해 공동 협력 연구소, 해양바이오 스타트업 30개 유치 등 해양바이오 헬스 산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도, 2021년에는 해조류를 주제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해 식음산업에 머물고 있는 해조류산업을 바이오 에너지, 뷰티, 의약품 개발 등 산업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해조류박람회는 정부로부터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획득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블루투어 프로젝트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광에서 목포, 완도를 거쳐 여수까지를 서남해안 관광도로로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해 해양치유관광 거점으로 조성,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 관광지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항후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헬스 산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70만톤의 해조류가 필요하다"며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에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전남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될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양치유 블루존 TIP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고도 미래 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야외 특별 상영

23~25일 돌리·베일리·찰리 상영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순천문화예술회관, 순천만국가정원, CGV순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 드림 등 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관객들에게 특별한 여름날의 경험을 선사할 야외 특별 상영이 열린다.

△오성운 특별전, 김수정 감독 '아기공룡 둘리 - 얼음별 대모험' =영화제 개최 다음 날인 23일 처음으로 만날 야외 상영작은 '오성운 특별전' 섹션의 '아기공룡 둘리 - 얼음별 대모험'이다.

오성운 감독은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 제작 당시 기획·제작을 총괄하는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지난 1983년 탄생한 둘리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선풍적인 인기

를 끌었고, 1996년 극장판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으로 다시 태어나 서울에서만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숫자인 35만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했다.

이번 야외 상영은 추억 속 국민 캐릭터인 둘리를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곁의 동물들, 라세 할스트롬 감독 '베일리 어게인' =24일에는 '우리 곁의 동물들' 섹션의 '베일리 어게인'이 상영된다.

최소 견생 4회차 '베일리'가 모든 생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주인들과 만나면서 우애하고 따뜻한 라이프 어드벤처를 보여 주는 영화다.

반려견과 인간의 교류를 개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담아 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야

외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우리 곁의 동물들, 쥘 드 메스트르 감독 '화이트 라이언 찰리' =25일 주말의 끝을 감동으로 물들일 세 번째 작품은, '우리 곁의 동물들' 섹션의 '화이트 라이언 찰리'로, 남아공 초원의 흰 사자 찰리와 소년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맹수와 친구가 돼 버린 소년 '비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 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 편의 야외 상영작이 외에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총 71편의 영화 상영으로 아름다운 생태 도시 순천의 여름을 행복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야외 특별 상영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곡성군 석곡농협 백세미, 친환경유기농박람회서 '인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제18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에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석곡농협과 함께 유기농쌀 백세미 홍보관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이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선택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각축장이다. (사)한국유기농협회 주최하며, 월간 친환경과 (주)월드전람이 주관해 진행했다.

올해로 세번째 참가한 곡성군은 '누릉지향 가득한 특허쌀 유기농 백세미'라는 타이틀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장에서 백세미로 밥을 짓자 박람회장에 가득 누릉지 향이 전해



곡성군 석곡농협이 주관한 '제18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에서 곡성군이 석곡농협과 함께 유기농쌀 백세미 홍보관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백세미를 시식한 방문객들은 특유의 식감과 누릉지 향에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될 정도"라며 극찬했다.

홍보관에서 한 편에서는 1kg, 4kg, 10kg 포장 백세미가 불티나게 판매됐다.

백세미 홍보를 위해 유근기 곡성

군수도 직접 홍보관을 찾았다. 유 군수는 "곡성 백세미의 쫄깃한 식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누릉지 향은 옛날 어머니가 해 주시던 가마솥 밥을 떠올리게 해 준다"며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백세미를 홍보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30억원을 투입해 백세미 도정공장 등 기반 구축사업이 완공되면 한 단계 더 높은 밥맛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일본여행을 취소한 국민에게 10kg 백세미 500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백세미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 대표 유기농쌀 백세미는 2017년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서 국외 의장상, 2018년에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강진군, 14일 제262회 다산강좌 개최

역사학자 이이화 초청

오는 14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강진 지역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이이화 역사학자의 제262회 강진다산강좌가 열린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연구가이자 한문학자인 이이화 역사학자는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로 '역사 할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이번 강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던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하고

강진 지역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이화 학자는 어릴 때 아버지에 가서 한문을 배웠으며, 청년 시절에는 문학도의 꿈을 꾀다가 한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됐다.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원광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전 22권), '인물로 읽는 한국사' (전 10권), '이이화의 만화

한국사' (전 9권), '허균의 생각', '전봉준, 혁명의 기록', '평등과 자유를 외친 동학농민운동', '이이화의 한문 공부' 등이 있다.

제262회를 맞이한 다산강좌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첫 강좌 이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고 노무현 대통령, 고은 시인, 법륜 스님 등이 초청됐으며 2019년도에는 박영선 국회의원, 개그맨 전유성, 신안인 김홍빈 그리고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의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최성장 기자

영암군,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영암군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본부, 전국 255개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지역 주민의 건강 정보를 수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광주시 남구, 장애인 취업 지원 현황 조사

19~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3490명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정보 공유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취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 취업 지원 현황 조사는 이 달 말까지 관내 등

록 장애인 3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장애인과 활동 지원 중증 장애인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취업 및 실업의 여부를 파악하고, 실업자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 상담과 일자리 제공, 교육 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모인 자료는 업무 연계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며, 남구는 이를 통해 관내 장애인들에게 고용 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업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직업 상담 훈련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2019 전남도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5명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19학년도 전라남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의 명단을 5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은 교육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에 따라 추가로 실시한 것이며, 총 5명 선발에 187명이 지원해 3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1차 합격자 8명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실시해 최종 5명을 선발했다.

최종 임용 후보자 등록은 5~6일 이들 간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인사지원팀(6층)에서 받으며, 신규 교사 임용 예정자 직전 연수는 오는 12~14일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2020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원 임용시험은 9월11일 공고를 거쳐 9월23~27일 원서접수, 11월9일 1차 필기시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 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담양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행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불법 간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를 방지하고자 5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 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인재를 받은 후 영업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 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가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와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된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간판 설치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 전 반드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허가·신고 절차, 설치 방법, 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 시 바다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포시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판소리 교실 운영

가 확대되고 우리의 고유 문화가 보전 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은 보성군 12개 읍·면 36개 소에서 주 1회, 총 144회로 이뤄지며,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판소리 대목과 민요, 국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판소리 교실로 8월의 무더위를 날려 버릴 예정이다.

'우리 가락 열씨구 학당' 강사는 전남도립국악단 창작 상임단원이며

지난 2006년 제14회 전국 임방울 명창대회 대통령상을 받은 '박종택 명창'과 1996년 목포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보성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한정하 명창', 전남도립국악단원으로 2011년 명창박록

주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민석 명창' 그리고 신세대 국악인 보성어리랑예술단 대표 '이유나' 등 실력 있는 국악인 4명이 맡았다.

보성을 주민 김모 씨는 "이런 무더위에 마을회관까지 찾아가 흥겨운 판소리를 가르쳐 주니 매우 기대되며 이 참에 우리 가락 판소리 한 대목을 배워 남들 앞에서 꼭 불러 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천석 기자

목포시,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 기본구상 완료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미래 성장 동력산업 시동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감도.

수협 인근의 수산물 선어판매장점들은 위판과 판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협 이전 이후 수산종합타운 부지로 이전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수협 이전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건립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산식품수출단지의 핵심 시설인 국제수산식품 전문센터는 공관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보강해 나가야 하며, 전 세계적인 식품 안전성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식품 생산 및 상품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종합수산시장은 주차장을 증축해 옥상층을 수산물 건조장으로 조성하고 아케이드를 전면 수리해 현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구축비 325억8000만원이 소요되며, 기존 시설기 위해 수협 이전 이후 수산종합타운 부지로 이전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수협 이전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건립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산식품수출단지의 핵심 시설인 국제수산식품 전문센터는 공관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보강해 나가야 하며, 전 세계적인 식품 안전성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식품 생산 및 상품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여수시, 지속 가능 관광 '가속'

시민불편대책반 신설·관광객 만족도 설문조사·관광숙박 안내 앱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과 관광객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속가능 관광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관광종합대책반 내에 시민불편대책반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소벽화골목 쓰레기 수거 대책 개선, 하회도 관광안내판 정비, 주요 관광지 입구 그늘막 조기 설치 등 불편사항 37건을 처리했다. 관광 성수기면 북새통을 이루는

종화동 해양공원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마련했고, 불법 노점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소음과 쓰레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낭만포차는 오는 10월부터 거북선대교 아래로 자리를 옮긴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돌산 백초~거북선대교 진출·입로 개설, 민덕교차로 개선, 웅천~소호 도로 개설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한화 아쿠아플라넷, 해상케

이블카, 여수예술랜드 등 관광시설 27개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역민 할인 시설을 확대해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관광객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월별 분석으로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연말 종합 분석을 통해 관광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동도, 돌산공원, 금오도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빅데이터 민원 분석도 시

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동도 탐방로 노후시설 정비, 백야항 교통 근무자 배치, 영취산 안전 안내판 설치 등 불편·개선 사항 7건을 발굴·처리했다.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안내 모바일 앱 '아! 여행!'과 숙박 예약 통합 시스템 'YESUJO(夜)'를 운영하고 있고, 10월 '음식 물가정보 공유'도 출시한다. 8월 한 달 간 관광 해설사 20명이 관광지에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진도군, 벼 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

16일까지 12일간

진도군이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2일간 벼 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해 적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지속된 장마 등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이 우려돼 벼 출수기 전후를 고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중점 방제 대상은 벼의 이삭 패 시기에 맞춰 멸구류(벼멸구, 환등멸구), 딱노린재, 흑방나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등이다. 특히, 멸구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번식력이 강해 적기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주변 일대에서 대 발생을 일으켜 논을 동글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들며 진딧물이나 멸구의 배설물로 그늘을 병을 일으킬 수 있어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 관계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집중 방제 기간 동안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관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은 벼 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 동안 마을 오프로드와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 2회에 걸쳐 관내 벼 재배면적 5337ha, 2838농가를 대상으로 벼 병해충 방제비 4억원을 지원했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동정=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환송식



김인주 나주시장은 6일 오전 8시 다문화자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환송식 참석.

2020년도 군특 도 이상사업 예산 반영 전남도 방문



송기구 고흥군수는 6일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2020년도 군특 도 이상사업 예산 반영 전남도 방문을 갖는다.

전남도, 폭염 가축 폐사 방지 160억 투입

쿨링패드·비타민제 등 지원... 축산농가에 지붕 물 뿌리기 등 관리 당부

전라남도는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당분간 낮 기온이 33℃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그 동안 각 시·군 축산부서와 유관기관, 축산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문자 및 마을방송을 통해 축산인의 건강과 축사·가축 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소방차 등을 활용해 축사 지붕 물 뿌리기 지원 등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또한, 도 예비비 등 긴급 예산을

편성해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쿨링패드, 대형 환풍기 등 시설·장비 76억원, 생균제·비타민제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24억원,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 6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필요한 전 축산농가에 지원해 폭염에 대비해 왔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 특별 지시에 따라 냉방시설비 56억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10억원 등 도 예비비를 추가 지원, 시·군에서 8월 초까지 냉방시설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완료토록 조치했다. 전라남도는 또 폭염 시 축산농가 농장 관리 요령도 적극 알리고 있다. 축사 천정에 스티로폼 등 단열

재 부착, 창문 개방,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적정 비료 사용 밀도 유지, 축사 천정에 물 분무장치 설치해 복사열 방지 등 축사 내부 온도를 적정 온도(15~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가축에게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비타민·광물질을 섞은 신선한 사료 급여(곰팡이가 피거나 오염된 사료는 공급하지 말 것), 축사 등의 분뇨 제거와 건조 상태 유지, 전기 누전과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냉방과 환기 시 전기 사용량 수시 확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축 폐사 시에는 신속하게 시·

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에 신고해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배운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폭염 시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축사 지붕 물 뿌려 주기, 환풍기 가동,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 신선한 물 급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축재해보험도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장기화되자 김영록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예비비 등 1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폭염 대응 시설·장비 및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가축 폐사 규모가 전국적으로는 78만4000마리로 전년보다 70% 늘어난 반면, 전남에선 97만1000마리로 오히려 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장흥군은 최근 지역에서 열린 각종 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흥군 '전국 스포츠대회' 성료

장흥군은 최근 지역에서 열린 각종 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에는 장흥 물축제 주무대에서 '2019 제1회 장흥군수배 오

론보디빌딩&피트니스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경기 결과, 광주 라이브 휘트니스 이황 선수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생부에서는 경기 안성 창조고

김권준 선수, 여자스포츠포츠급은 장원 라반휘트니스 최석하 선수, 남자스포츠포츠급은 보성 피트니스 구태규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는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대한체육회 장애 전국 피구 대회'가 열렸다. 경기 결과, 초등 남여 혼성부에서는 부산오션초, 군산소룡초, 산북초B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중등 남여부는 나주영산중, 마산무학여중이, 고등여자부는 마산무학여고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성인 남여부는 익산클럽, 김해피구협회가, 지도자 남여부에서는 광주 지도자, 대전 지도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각종 스포츠대회를 물축제 기간 중 개최함에 따라 전국의 스포츠인들이 장흥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유동인구 3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규근 기자**

광양시, 2019 규제 개혁 역량 강화 교육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 초청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9 규제 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을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사례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적극 행정'이라는 주

제로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의 긴밀한 연관성 및 방향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현 법제협력관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개선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 행정 해소를 강조했다. 또한,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지자체 예산, 감사 등 관계 부서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규제 개혁의 필요성, 규제와 국가 경쟁력, 분

이별 우수 규제 개혁 사례 등과 행정·기업·시민 생활·4차 산업 혁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 강연을 펼쳤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원복 광양시장은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광양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광주시 동구, 무더위에 어르신 건강 지키기 나서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독거 어르신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구는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실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786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보호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폭염 특보 발령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생활관리사 28명을 통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온열 질환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서도 관리를 진행 중이다. 거동 불편 어르신 340여명을 대상으로 말벗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거동 불편 독거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233세대를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체계적인 일상 생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5월부터 129회에 걸쳐 취약계층 어르신들 800여 명에게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건강 수칙 등을 내용으로 폭염 대비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폭염 관련 물품 후원도 곳곳에서 답지하고 있다. 동별로 지역사회협의체가 돌봄 이웃들에게 선봉기 등 냉방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재)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

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클레트·양산·에어서플레이터 등을 지원했다. 동구는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방송·반사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올해 경로당 110개소에 공기청정기 188대를 신규 설치하고 에어컨 20대를 추가 보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9월 말까지 무더위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 세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열 질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폭염 발생 시 물을 자주 섭취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삼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재경고흥군향우회 120여 명이 고향인 고흥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고향의 맛과 정을 듬뿍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 고흥군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 성료

교육발전기금 기탁·청소년 꿈키움 토크 콘서트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재경고흥군향우회(회장 이호) 120여 명이 고향인 고흥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고향의 맛과 정을 듬뿍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 차를 맞는 고향 방문 행사는 첫 날 고흥~여수간 연속연도교인 팔영대교 방문을 시작으로 우주발사전망대, 남포미술관, 팔영산 편백수 등을 돌아 보고, 이튿날 금당

팔경 탐방과 나로우주센터 견학 등으로 1박2일 일정을 진행했다. 향우회를 맞이하기 위해 고흥군민회관에서는 송귀근 고흥군수와 송우희 군의회 의장 등 군, 읍·면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행사가 개최됐으며, 송 군수는 향우회장을 비롯한 임원 39명을 명예군수, 읍·면장, 홍보대사,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류영택 기자**

또한, 환영사를 통해 "고향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향우들에게 항상 감사 드린다"며 "군은 향우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에 힘을 내 고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 고흥군향우회는 교육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방문 기간 중 법조인, 경영인, 교사 등 전문직종에서 활동하는 향우 7명이 바쁜 일정을 쫓겨 '신나는 꿈 키움 토크 콘서트'라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한 80명의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시간을 선물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무안군 운남면, 휴가철 대비

영해공원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무안군 운남면(면장 박종화)은 지난 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행사장인 영해공원 공중화장실 점검과 환경 정비 등 대청소에 나섰다. 이번 환경 정비는 영해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쾌적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군은 화장실 위생 상태,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파손 등 관리 실태 점검과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극승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지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수우)가 제철소와 건설사, 협력사 직원들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진료는 제철소 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속 작업 등으로 사내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올해 3월부터 현장을 돌며 순회 진료를 이어 가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관리자로 순회 진료팀을 꾸리고 대수리 현장과 같은 제철소 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약품도 제공한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하도급 감독관 제도 도입

감사실 자체 감독관 지정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감사실 내 자체 '하도급 감독관'을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감독관'은 감사부서 근무자 중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한다. 이들은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갑질 행위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상

이두성 구례부군수, 주요 현안사업장 점검·업무 보고 청취

지난 7월18일 구례군 부군수로 취임한 이두성 부군수가 지난 달 2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주요 시설과 현안 사업장 48개소를 찾아가 추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임 부군수로 리 현장과 같은 제철소 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약품도 제공한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안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했으며, 지리산 정원은 색깔 있는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또한, 지리산역사문화관은 콘텐츠 재배치와 자료에 대한 고증 실시, 구례포리연습장 건립사업은 운동 외의 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많은 사업들이 상호간 연계 발

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후 관리 및 운영 관리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서별, 사업별로 군정 현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 방식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김종철 기자**

경북형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도-주택금융공사-대구은행-NH농협은행 경북본부 간 협약... 도내 고졸 청년취업자 주거비 부담 완화

경상북도는 8월 5일 오후 도청 사립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은행경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고졸 청년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

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제공과 보증 조건 완화를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상환 개발과 대출이자를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은 고졸 청년의 학업·취업·주거·결혼·자녀출생까지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연계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인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졸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인 '학·잡·아 프로젝트'는 고졸청년의 후학습, 취업, 주거, 결혼, 자녀출생까지 생애 주기별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고졸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은 물론 임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졸자의 실업을 상충, 청년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고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밖에도 고졸취업 청년들의 장기재직, 결혼, 자녀출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의성컬링센터

시범운영 돌입

의성군은 컬링장 대관 사용료 조례 시행에 앞서 8월 한달 간의성컬링센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 내부시설의 새 단장을 끝내고 손님맞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데플립(청각장애) 국가대표 선수 16명과 전국 27개 전문컬링팀 등 총 160여 명이 대관 신청을 해 차가운 빙판 위에서 선수들의 함성과 스톤 부딪치는 소리가 활기를 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의성컬링센터를 전문컬링팀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 체험·동호회 시설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컬링장 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적극 개선하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며 향후 본격적인 정상 운영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4월부터 컬링장 운영에 나서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경상북도 체육회 소속 남·여 컬링팀, 믹스 더블팀의 대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채용된 지도자들과 체계적인 훈련에 돌입한 컬링 꿈나무들의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주승 의성군수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동안 최적의 시설 운영과 관리 방법을 찾아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의성군이 스포츠를 통하여 제도 약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성달 기자**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영상물 10억 밀어주기 의혹

경주시가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또 다시 10억을 들여 영상물 제작을 기획하고 있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황룡사 역사문화관에는 15분짜리 황룡사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지난 2016년 최양식 시장이 모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면서 말이 많았던 영상물이다. 당시 제작비는 10억 원이었다. 이번에 경주시에서 또 다시 추진하는 '삼국통일 역사문화 소개 영상제작'비 역시 10억 원의 예산이다. 지난 2018년 12월 13일 경주시 주낙영 시장이 경주시의회에 '신라 문화 영상 디지털 영상제작'이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의결 후 부결했다.

이어 2019년 4월 29일 경주시는 다시 추경으로 명칭을 바꿔 '삼국통일 역사문화소개 3D 영상제작'이란 명칭으로 10억 원의 사업예산을 다시 올리고 시의회는 논란 끝에 승인했다. '삼국통일 역사문화 영상 제작'

목적은 경주시당당자는 "황룡사 역사 문화관에 불거리가 없다"며 "제작 후 현재 상영하고 있는 황룡사 홍보 영상물과 같이 상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 밀어주기 의혹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경주시 주낙영 시장이 당선되고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 민주당 시의원 김상도, 서선자, 한영태, 김태현 당선자들과 현국 K 씨의 집에 모여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삼국통일 역사문화 영상제작 계획이 이야기거리로 나왔다. 이날 주 시장을 집으로 초대한 K 씨는 민주당 당원이고 현재 황룡사 역사문화관 내에서 상영하고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업체 대표이며, 이 영상물은 지난 경주시 최양식 시장이 10억원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어 말이 많았던 장본인이다. 경주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에는 불거리가 없어 관광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비 100억, 도비 13억, 시비 30억 총 143억의

많은 돈을 들여 황룡사지에 건립된 역사문화관은 본질부터 잘못된 설계였다. 이곳은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500m는 걸어가야 입구가 나온다. 38도가 넘는 피야벌에 관광객들이 걷기에는 먼 거리다. 경주시가 다시 영상물을 10억을 들여 제작하기 위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센터장 이진탁)와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유산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문화유산 브랜드를 강화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 제작사업을 맡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경주시 경영상적평가가 최악의 점수 69.8점 마등급을 받은 곳이다. 경주시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삼국통일 소개 영상 제작물에 대한 입찰 등 모든 주관을 이관시켜 주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을 가중시켰다. 또한 얼마 전 이 영상물 제작 입찰과 이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경주시 자유한국당 시의원 간에 마찰이 있었다. **■이민석 기자**

관광객 맞이 식품·공중업소 위생점검

울진, 관광객 및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대비

울진군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피서객과 제55회 추계 한국중등(U-15) 축구연맹전 대비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의 합동점검으로 축구 연맹전 숙소,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27일까지 지도점검을 한다. 주

요 점검 내용은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객실 및 침구류 등 정결 위생 관리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중사자 건강검진 등 위생상태 △식중독 예방방법 △메뉴판 가격표 게시 등으로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손님 맞이 바가지(부담) 요금 근절 및 친절서비스 현장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남형기 기자**

'안동 월영야행(夜行)' 열흘간의 대장정 막내려

안동의 여름휴가 콘텐츠로 자리매김

7월 26일부터 열흘간 월영교 일대를 달빛 아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웠던 '2019 안동 문화재 야행(월영야행)'이 막을 내렸다. 월영교에 깃든 원이 엄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서 착안해 '남들도 우리처럼 사랑할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월영야행은 20여만 명의 내·외국인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작은 날씨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월영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누린 월영야행은 다채로운 야간경관 프로그램으로 불거리를 제 공했다. 석빙고, 선성현 객사, 의촌동 초가도토리집, 계남 고택 등 주변에 있었지만, 인지도가 낮았던 문화재도 이번 야행을 통해 알리고 각 문화재에 얽힌 안동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게 해 관광객과 시민에게 문화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까지 4일간 진행되던 월영야행을 10일로 확대 개최하고 관광 트렌드에 맞춘 야간 조명 확대, 인도교인 영락교를 통한 공간 활용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타 지역의 문화재 야행과는 달리 주변 자원을 활용한 수상 다리, 전통 등간 전시,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을 활용한 사진 전시 등을 통해 안동이 가진 역사와 전통의 멋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 냈다. 특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포토존을 연출해 1인 미디어 시대 SNS 채널 사용자들의 야간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

다. 이에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월영야행 행사장 전경을 올리는 등 자연스러운 홍보 마케팅 효과를 가져왔다. '2019 안동 문화재 야행(월영야행)'은 적극적인 관광트렌드 반영과 야간 관광의 경향성, 그에 따른 관광 상품 연계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을 안동으로 불러 모으는 성과를 가져왔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월영야행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재 관광의 또 다른 트렌드를 제시했으며, 내년에는 더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대표 여름 축제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성주호돌레길 걷기대회에서 성주군 금수면 직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주군 금수면 직원, 주말 성주호돌레길을 걷다

성주군 금수면은 8월 3일 직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수면 봉두리에 있는 성주호에서 가야산선비산수길 제1코스인 성주호돌레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여름철 관광객이 금수를 많이 찾고 있고 지난해 연말 준공한 성주호돌레길을 직원들이 출장시 매일 보기는 하지만 직접 걸어보지는 못하여 돌레길 체험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성주호돌레길은 가야산선비산수길

제1코스로서 총길이 23.9km이며 아라월드에서 출발하여 영모재를 지나 부교, 쉼터 2개소, 문화공원, 신성리 마을앞, 성주댐둑길, 아라월드로 오는 코스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성주호에 있는 아라월드에서 모트보트를 타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걷기 좋은 코스이다. 이날 금수면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라월드에서 집결하여 성주호위에 떠 있는 부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돌레길 쉼터에서 넉넉스 퀴즈대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갑속 금수면장은 "직원들의 관광지 체험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직원회합 및 힐링 시간을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걷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호는 1994년에 준공하여 저수량이 4천7백만톤이며 성주, 고령의 농업용수로 개발되었다. 아라월드 는 아시아 최대, 국내 최초의 수상레저테마파크로서 2012년에 준공하여 연간 7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다. **■황성달 기자**



소중한 사람을 안습니다
하나뿐인 자연을 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안전으로 안아드리겠습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친환경관리를 인간과 자연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을 감싸는 아름다운 허그

공단주요업무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부지선정·건설·운영·폐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국제협력·인력양성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홍보 및 대국민 이해증진 사업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지난 4일 경주엑스포를 찾은 푸에르토리코 K팝 문화탐방단이 신라문화역사관에서 석굴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한 특별한 손님

푸에르토리코 K팝 문화탐방단 방문

“여기가 화랑의 나라인가요? 너무 멋져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 왔다.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는 인구는 369만명이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13% 정도 되는 1만3790km이며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사이의 작은 섬으로 미국의 자치령이다.

지난 4일 ‘푸에르토리코 K팝 문화탐방단’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방문해 경주타워와 신라문화역사관 등을 관람하고, ‘여름Pool축제’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경주를 찾은 푸에르토리코 방문단 중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9명

과 가족 등 26명은 K-POP의 나라인 한국의 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올해로 5년째 한국을 방문했고, 경주엑스포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 대부분은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큰 푸에르토리코 현지인들이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서울, 안동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을 선정해 전국 곳곳을 둘러 볼 예정이라 전하며, 경주엑스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시원한 여름 Pool축제까지 열리고 있어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인솔자 변영자(74·교포)씨는 “말로 설명하는 역사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현지인들에게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알려 줄 수 있는 장소들을 선정했다”며 “경주엑스포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탄하는 모습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탐방을 온 학생들도 즐거움과 감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탐방을 온 카를리(21·대학생)는 “계속 발간되는 한국의 모습도 놀랍지만 경주와 경주엑스포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이 환상적(판타스틱)”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온 나렐리(15·중학생)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신라 화

랑에 대해 알게 됐다”며 “멋진 화랑이 살았던 경주와 신라의 역사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고 말했다.

“경주엑스포 여름 Pool축제”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금·일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유아, 어린이, 성인 등 연령에 맞는 6개의 풀장과 높이 11m, 길이 40m의 슬라이딩, 매 시간 운영하는 즉석 이벤트가 흥을 더한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인기 가수 공연은 축제의 열기를 끌어 올린다.

10일엔 DJ KOO(구준엽), 17일엔 원투, 24일엔 DJ춘자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칠석(8월7일)엔 ‘2030미팅파티’, 말복(8월11일)엔 ‘차맥파티’ 등 특별 이벤트도 시선을 끈다.

■이민석 기자

2019 영덕황금어축제 성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19 영덕 황금어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영덕의 푸른 산을 배경으로 치러진 황금어축제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행사 기간 내내 폭염 특보가 내릴 정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심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방문객도 전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황금어반두잡이와 어린이 은어맨 손잡이는 여전히 가장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맑은 오십천 물에 발을 담그고 맨 손으로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숯불에 구워 먹는 경험에 방문객들은 특별한 추억이 있어 입을 모았다.

한국해양소년연맹에서 주관한 야외 가족 물놀이체험장도 높은 인기였다. 워터슬라이드, 카약 등 각종 물놀이기구 등 안전에 우선한 운영은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관내 숙박 시 은어반두잡이

체험 50% 할인행사와 행사장 내 사 용가능한 상품권 발행은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영덕군 관계자는 “여름철 대표축제인 영덕황금어축제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오십천 주변 수변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 으뜸 농산물 홍보·시식행사

황금은어축제장서 개최... 영덕복숭아 홍보 도모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회장 이창석)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019 영덕황금은어축제장에서 ‘영덕군 으뜸농산물 홍보·시식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영덕의 여름 대표 과일인 복숭아의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복숭아 60박스(1박스/18kg)와 복숭아와 사과즙을 각각 2500개를 준비해 행사 기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 주며 시식회를 운영했다.

영덕군의 총 290ha, 370농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영덕 복숭아는 동해에서 불어 오는 해풍과 많은 일조량 덕에 당도가 높고 비타민C 함량이 높다.

또한, 새콤달콤한 복숭아 특유의 향과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다.

올해 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인해 복숭아 판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이다.

한농연영덕군연합회 이창석 회장은 “힘들게 키워 놓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복숭아 홍보·시식행사를 추진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영덕복숭아와 복숭아즙을 맛 보고 복숭아 소비 촉진을 늘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영덕황금은어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영덕복숭아의 향긋한 향과 맛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것 말고도 영덕복숭아의 판매 촉진을 위해 7월22일부터 영덕읍 남산 지역과 영하면 사랑해요 영덕휴게소에서 영덕복숭아장터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의성군선관위 ‘청소년비전캠프’ 후원

7일까지 의성군의회·대구경북학회 협업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성군선관위’)는 의성군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학회가 주관하는 ‘2019 청소년 비전캠프’의 운영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 의성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첫 발을 뗀 청소년 비전 캠프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올해에도 제7회를 맞는 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의성군의회 및 대구경북학회가 협업해 지역 청소년이 임시 경쟁으로 잠시 미뤄 왔던 청소년기 정체성과 인생 비전을 고민해 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속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선거의 역사와 유권자의 역할을 주제로 리더쉽 강의 및 선거투·개표 지원으로 학생들이 공식 선거를 모의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그 밖에 의성군의회는 행사의 주최자로서 의정활동 체험 뿐만 아니라 행사의 총괄적인 관리·지원을 맡았고, 대구경북학회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 다채롭고 유익한 청소년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모의 선거 체험은 후보자 등록에서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증 교부

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제 공식선거에서 활용되는 기표구와 기표대를 활용해 최대한 현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학생들은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투·개표 사무원도 돼 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선거 관리의 주체가 돼 보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예정이다.

이 날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권오현 지도홍보계장은 참석자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청소년 연수 프로그램이 선관위나 군의회, 학회 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의성군 선관위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달 기자

의성군립도서관 ‘놀러와~ 우리들의 웹툰’ 캠프

의성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의성군립도서관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웹툰을 주제로 한 초등학생 대상 도서관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립도서관 3층 웹툰창작체험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대구예술대 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교수 조준호)가 기획하고 관련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3~6학년 학생들이 직접 보고 그리고 즐기며 웹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생생한 웹툰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캠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웹툰캠프와 16일 부천시 탐방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 프로그램은 △아바타 그리기 △그림 퀴즈 △창의력 더하기 게임 △이어서 만화 그리기 △20년 후 미래 그리기 등으로, 웹툰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태블릿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자신 만의 웹툰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견학해 웹툰캠프의 깊이를 더한다.

만화축제에서 열리는 웹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의 ‘웹툰작가’라는 꿈을 더욱 키워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 신청은 9일까지이다.

의성군은 군민들의 체감온도를 낮추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살수차를 지난 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태풍과 장마 이후 계속되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오는 9월까지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 발효 시 기상 상황에 따라 최대 하루 8시간 동안 살수차 3대를 운영해 살수작업을 실시한다.

주요 운행노선은 의성읍을 포함한 주요 시가지 도로이며, 살수차 작업을 통해 도로의 주변 온도를 낮추면서도 미세먼지를 제거해 대기질 개선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성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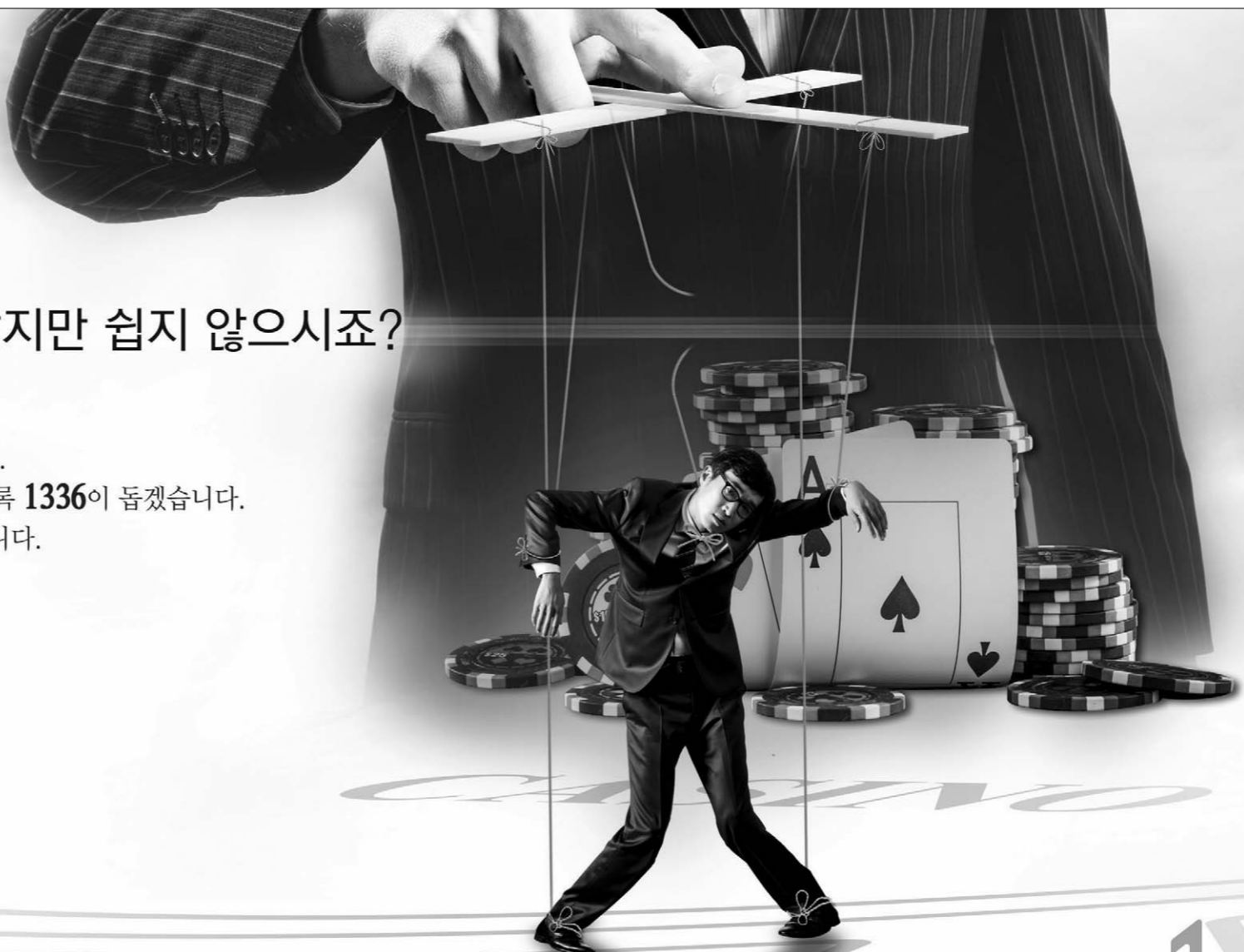
도박중독, 끊어야 할 줄 알지만 쉽지 않으시죠?

도박중독은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유혹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1336이 돕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헬프라인 | 365일 24시간 운영

상담은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인터넷 상담 www.kcgp.or.kr



느낌과 심이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 고택 체험·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 등 테마 가득한 여름휴가 명소 소개

산소카페 청송군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최고의 여름휴가 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다. 산소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울창한 푸른 숲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브랜드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군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현대인들에게 쉼과 힐링을 제공하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테마 가득한 여름휴가 명소들을 소개해 본다. 먼저, 바쁜 일상 속 복직임을 피해 여유로운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면 청송 고택 체험을 빼 놓을 수 없다. 청송에는 15개의 고택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으며, 그 중 덕천마을에 있는 송소고택과 송정고택, 청원당이 대표적이다. 송소고택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

는 99칸짜리 고택 중 하나로 고택 체험과 떡메 체험, 다도 체험, 사과 따기 체험 등 청송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숙박객들에게 농촌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관광의 별’ 체험형 숙박시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소고택과 나란히 위치한 송정고택과 청원당은 공동으로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다

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체험 외에도 음악회를 통해 고즈넉한 고택에서 국악과 풍류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전통문화 체험(한복, 전통놀이, 공예 등)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 24개 중 8개를 보유한 주왕산 국립공원은 여름에도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걷기 여행길로 선정한 주왕산 계곡 코스(대전사~용추폭포, 2.2km)를 추천한다.

특히,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수목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 명소로 판명된 산소카페 청송군에는 산림욕을 즐길 곳이 많다. 청송자연휴양림, 주왕산국립공원 상의오토캠핑장, 수달캠핑장 등지가 대표적인데, 모두 푸른 소나무가 뿜어 내는 피톤치드를 들뜬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이다. 대규모 놀이시설을 갖춘 워터파크도 좋지만 바위가 미끄러질 때가 주는 계곡에서의 물놀이도 나름 매력이 있다. 청송군 주왕산면에 위치한 한여름 쉼처 32도 이상만 되면 돌에 얼음이 끼는 곳으로, 계곡의 골을 따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시원한 생수가 솟아난다. 또 얼음 골 비경을 배경으로 매년 여름 ‘드라이빙대회’가 개최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벽 등반 경기를 관람하면 모험 스포츠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편안한 물놀이 장소로는 청송읍 소재지의 현비암 강수욕장을 추천한다.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내 5대 물놀이 안전장소로 선정된 이 곳에는 편의 및 안전시설을 두루 갖추었으며, 주말에는 황금 메기 잡기 체험, 어린이 물총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행사도 진행돼 인기 만점의 물놀이 장소이다. 또 강수욕장 옆에서는 후서기 이색 마라톤대회도 열린다. 오는 11일 태행산 임도와 소나무 숲길을 달리는 산악 마라톤 대회인 ‘청송사과 트레일런’은 봄·가을에 치중된 기존 마라톤 대회와는 달리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개최, 시원한 폭포수가 흘러 내리는 강수욕장에서 물놀이와 피서를 겸해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대회다.

그리고 알찬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청송에는 삼복 더위를 물리칠 최고의 보양식인 약수닭백숙이 있다. 약수닭백숙은 달기약수탕과 신선약수탕에서 나오는 탄산 약수와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 푹 고아 내는데, 탄산 약수에 함유된 탄산과 철 성분이 닭의 지방을 제거해 소화를 도와 주고, 약재들이 몸의 기운을 풀아 줘 청송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며, 백숙과 함께 먹는 매콤한 닭불고기 또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별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울창한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산소카페 청송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라며 “정당한 자연환경은 물론,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즐비한 청송에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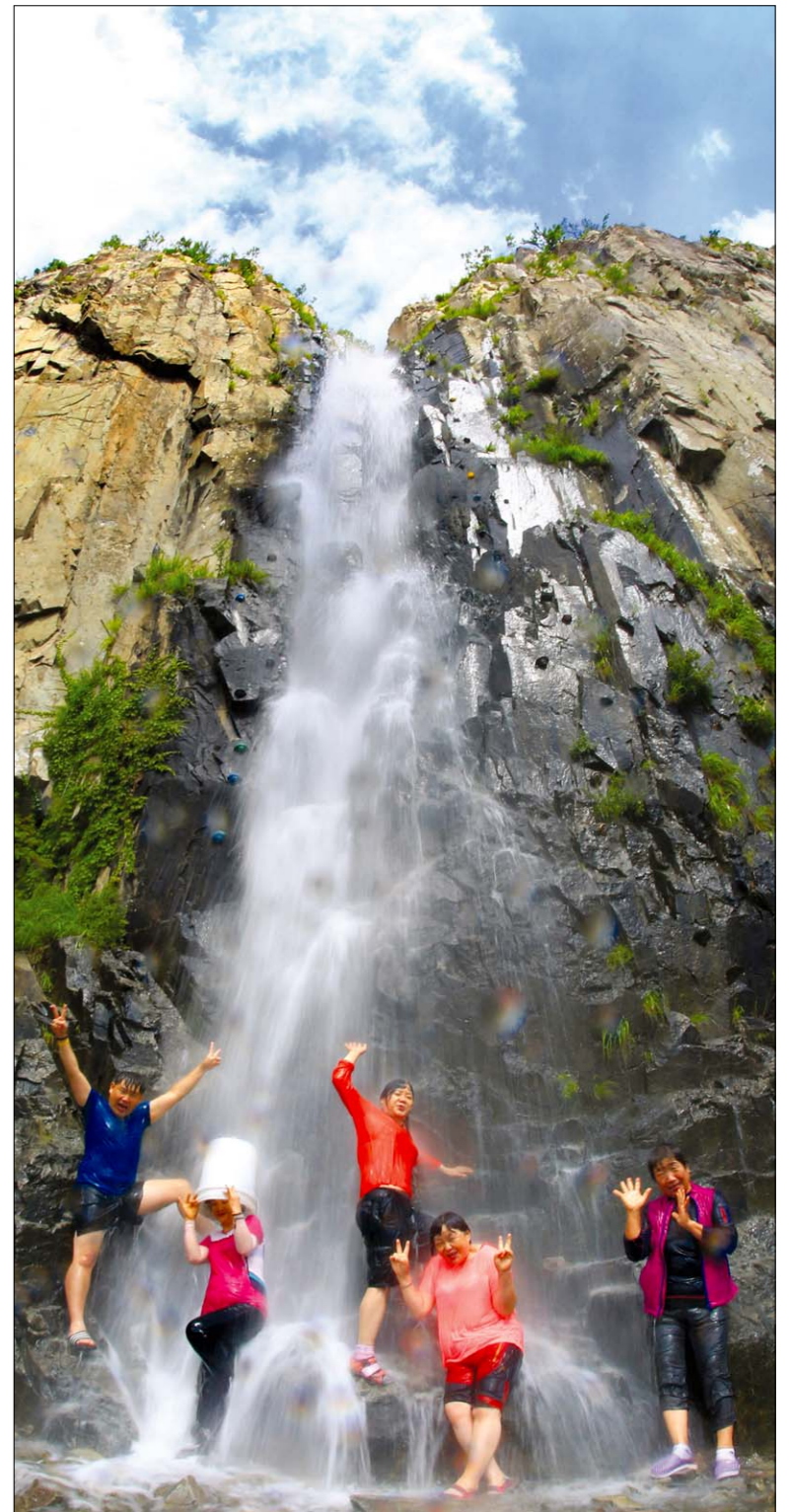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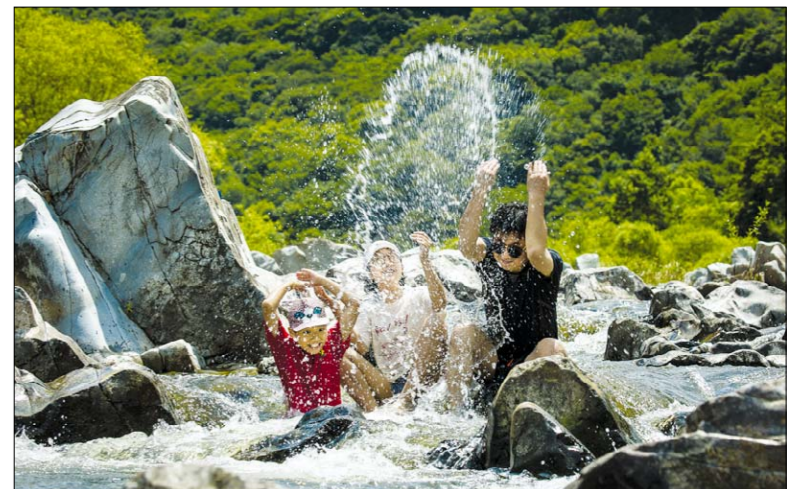
주왕산 지질 명소.



닭백숙, 닭불고기, 닭날개.



얼음골 피서객.



백석탄 피서객.

세계문화유산 **동암서원**에서

사람 꽃 피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세계문화유산도시 논산

동암서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